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재무부 “잠자고 있는 돈 찾아가세요”

재무부 '주인잃은 돈' 24억 달러 보관, 지난 2년간 2억2천5백만 달러 찾아가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검색 가능, 검색 된 돈 청구도 간소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찾아가지 않은 주인 잃은 돈을 되돌려 드립니다” 매사추세츠주 재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찾아가지 않은 돈’에 관한 이야기다.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했거나 하고 있는 한
인들은 반드시 주 재무부 ‘파인드매스머니
닷컴(findmassmoney.com)’ 을 통해 혹시
자신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방법을 모르거
나 귀찮아서 찾지 못한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매사추세츠 주 재무부는 지난 2015년 드보라 골드버그 재무장관 취임이래 찾아가지 않은 주인 잃은 돈(Unclaimed money)을 간편하게 검색해보고 이를 찾아갈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민들이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주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재무부는 24억달러에 달하는 '주인 잃은 돈' 들을 보관 중이며, 웹사이트 개설이라 지난 2년간 무려



2억2천5백만 달러를 찾아갔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와 달리 절차를 아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일단 ‘파인드매스머니닷컴’에 들어가〈시작하기〉버튼을 누르면 성과 이름, 살고 있는 시, 우편번호 등을 기입하는 검색창이 뜬다. 이름과 성만을 넣고 검색해도 되며 검색

범위를 좁히려면 우편번호 또는 시 등의 추가 정보를 넣고 검색할 수도 있다. 모든 돈은 5불 이상일 때만 검색 결과에 나타나게 된다.

벨몬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검색을 통해 과거 부모님의 미사용 은행계좌에 남아있던 돈 1천500불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다. 한국으로 되돌아 가신 부모님이 은행계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자 은행은 이 계좌를 폐쇄하고 잔액을 주 미청구재산부(Unclaimed Property Division)에 송부했었다. 최씨가 은행에서 이를 찾으려 했지만 은행은 이미 송부한 돈이라며 재무부에 청구하라고해 여태 찾지 못했었다.

스토텐햄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과거 세금 리턴을 받지 못했던 금액을 검색을 통해 발견했다. 정모씨는 약 500여불에 달하는 돈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이 돈을 청구하기가 까다로워 포기하다시피 했다.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청구서에 공인 ▶▶6면으로 계속

트럼프, 영주권 발급 절반으로 줄인다

트럼프, 2명 상원의원 영주권 발급 축소법안
"영어 가능한 이민자만 원한다" 천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영주권 발급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일 백악관에서 탐 카튼(알칸사스), 데이비드 퍼듀(조지아)와 함께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다.

일자리확보를 위한 미이민개혁(RAISE) 법 즉 레이즈법이라 부르는 이법안은 지난 50년간 미국이 추구했던 이민정책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꿔 이민문호 개방에서 이민자 유입 통제로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카튼, 퍼듀 의원과 두차례 회동을 갖고 이 법안 제정을 의논했었다.

이 법안의 첫번째 타겟은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이다. 지금까지 허용해왔던 성년 시민권자의 자녀와 부모 그리고 형제초청을 중단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초청만 허용한다.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illegible]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대표원장
Dr. Chang Yoon, DPT
 브록라인 (하나병원) 원장
Dr. Miran Kwon, DPT

교통사고/학생보험/닥터노트/여행자보험

울스트론 크리닉
617.731.1001

브록라인 크리닉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 원 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경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뉴햄프셔 한국전 참전용사행사 미언론 주목 이유

뉴햄프셔 한인회 한국전참전용사 보은행사
콩코드 모니터 7.29일자 1면에 대서특필
참전용사들 특별한 예우가 미군 지원 장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행사가 뉴햄프셔주 콩코드모니터(Concord Monitor) 7월 29일자 1면을 장식하는 등 주류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인의 참전용사 기념행사가 미국사회에 기억되는 현상이었다.

뉴햄프셔 한국전참전용사회 앨런

하이든리히 회장은 콩코드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잊혀진 전쟁이라 하지만 나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약간 간과되는 것은 있지만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 잊혀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고 밝혔다. 뉴햄프셔 한인회가 7월 28일 토요일 오후 뉴햄프셔주 현충원에서 주최한



Alan Heidenreich 전우 회장에게 기념품 넥타이 수여하는 박선우 고문 (사진 = 콩코드 모니터)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에 참여한 하이든리히 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이상 결코 잊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드는데 초석을 다졌다는 업적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고 밝혔다.

콩코드 모니터에 따르면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가려운 곳을 긁었다. 한국의 정부를 대표해 엄총영사는 “미군의 희생없이 한반도는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 한국인들은 생각한다.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미국의 커다란 무역 동반자가 됐다” 고 참전용사의 공헌을 치하했다. 한인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확인이었다.

존 스누누 주지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치하하는 공로장(Commemoration)을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 고문을 통해 전달했다. 마이크 혼 주립현충원장, 진 쉐히인, 마가렛 핫산 상원의원 보좌관, 캐롤웨이 포터, 앤 커스터 연방하원 보좌관들이 참여해 이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미 양국의



뉴햄프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행사가 뉴햄프셔주 콩코드모니터(Concord Monitor) 7월 29일자 1면을 장식하는 등 주류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계 관계자들이 모두 관심과 격려를 표현한 것이다.

워렌 페리 주 방위군 부사령관은 뉴햄프셔 한인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 보철 전문
- *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로드아일랜드 한국전 휴전 기념식 가져

▶▶2면에 이어서

회가 마련한 보은행사 등의 기념식이 더 많은 군 지원자를 만든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페리 부사령관은 “사람들은 참전용사들이 어떻게 대우받으며 어떻게 기억되는가를 바탕으로 군에 지원하게 된다”며 “잊혀진 한국 전임에도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미래 세대들이 추종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행사후 한인회의 넥타이 선물도 화제가 됐다. 한국전통문양 포장지로 곱게 싸인 박스에 성조기와 태극기 문양과 “Thank You, Korean War Veterans”라는 감사의 메시지가 적힌 넥타이를 박선우 고문이 앨런 하이든 리히 회장에게 직접 증정했다. 조은경

한인회장과 임원들은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이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한식 뷔페로 차려진 음식이 제공되었다.

앨런 하이든리히 회장은 콩코드 모니터에 “이처럼 기억해주고 선물까지 전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한인회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뉴햄프셔한인회에서 해마다 열고 있는 참전용사 보은행사가, 한인동포사회에 대한 미 주류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을 키우며, 상호발전적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일 것”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행사장의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 64주년을 맞아 프로비던스 소재 한국전 휴전기념비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한인회가 함께 한 기념식은 한국전 휴전을 기념하고 전사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예식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찬 이사장과 김창연 이사가 참석했다.

프로비던스 소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1998년 10월 8일 건립됐다. 군인조각상 주위는 기념비를 후원한 단체 및 개인의 이름이 새겨진 벽돌로 보도가 만들어져 있다. 하얀 벽돌은 한국전쟁중 전사했거나 실종된 로드아일랜드 참전용사를 상징하고, 빨간 벽돌들에는 기념비를 후원한 개인이나 단체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 64주년을 맞아 프로비던스 소재 한국전 휴전기념비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를 기록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2008년에 기념비 운영 지원 모금에 \$2400을 지원하

고 벽돌에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이름이 새겼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햄프셔 한인회 12일 광복절 기념 행사

기념식 및 한인친선 단합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는 8월 12일 토요일 뉴햄프셔주 베드포드 소재 뉴햄프셔 한인교회에서 광복절 기념식 및 광복절 한인친선단합대회를 개최한다.

한인회는 오전 11시부터 기념식을 갖고 한식 뷔페로 점심을 함께 나누며 오후에는 친선 배구대회, 광복절 관련 영화 상영, 그림그리기 대회, 태극기 만

들기, 태극기 얼굴 페인팅 등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광복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뉴햄프셔 한인회 조은경 회장은 한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72주년 광복절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순국하신 선조들의 숭고한 뜻과 그 날의 감격을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기리고자

합니다”고 말하고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일시: 2017년8월12일(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뉴 햄프셔 한인교회 (NH KOREAN CHRISTIAN CHURCH) 12 STATION ROAD, BEDFORD, NH 03110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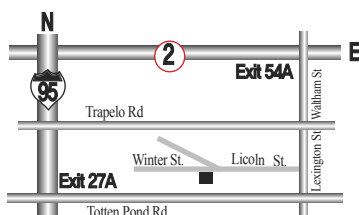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JULY 10 - JULY 28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시민협회 연례 무료 시민권 취득 워크샵

8월 19일 토요일 성요한 교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시민협회는 8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렉싱턴 소재 성요한한인감리교회에서 2017년 무료 시민권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무료 시민권취득 워크샵은 22회 째다.

트럼프 취임이후 반이민정책이 강화되면서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은 급증하고 있다. 미주한국일보가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통계국(OIS)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17 1월부터 3월까지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3,137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111명에 비해 48.6%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스톤에서도 시민권 취득

추세가 그대로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

시민협회는 이날 워크샵을 통해 시민권취득의 전과정을 무료로 돕는다. 참석자들의 시민권 신청서(N-400) 작성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며, 변호사들이 기재사항과 관련된 문의에 답하고 최종 서명까지 제공한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서류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워크샵에 참석하는 한인들은 영주권, 소셜시큐리티 카드,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원하는 이름, 이민국에 송부할 시민권 신청료(\$640)와 지문 채취료(\$85) 총 \$725의 개인수표 혹은 마니오더(Payable to 'USCIS'), 미리 기입한 시민권 신청

서(N-400)를 준비해 가야 한다. 시민권 신청료는 지난해에 비해 \$45이 인상돼 \$700을 넘게 됐다. 18세 미만은 시민권자 부모가 대신 N-600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 중 음주운전 등 전과, 불법체류 사면자들의 신청에 관한 사전 문의는 이경혜 시민협회장(508-962-2689) 또는 김성균 이사장(617-799-7033)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장소: 렉싱턴 성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ton, MA 02421
hsb@bostonkorea.com



(앞줄 왼쪽부터) NH한인교회 문은호 목사, NH장로교회 장의한 목사, NH한인회 김성 고문, 엄성준 총영사, 한윤영 고문, 신호철 목사 (뒷줄 왼쪽부터) 네번째 조은경 회장, 다섯번째 김수홍 부회장, 오른쪽에서 네번째 김수현 총영사 부인, 오른쪽 끝 박선우 고문

뉴햄프셔 한인회 뉴햄프셔 장로교회 방문 간담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한인회는 7월 28일 맨체스터에 위치한 뉴햄프셔 장로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참석한 후, 동포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마다 한인회는 뉴햄프셔주 내 6개 한인교회를 방문, 한인동포들을 직접 만나 동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포괄적인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 첫 방문으로 조은경 회장과 김수홍 부회장 그리고 한윤영, 김성, 박선우 고문 등이 참가해 장의한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뉴햄프셔 장로교회를 찾아 면담을 가졌다.

한인회의 2017년 첫 교회방문에는 보스톤 총영사관의 엄성준 총영사 내외가 함께 해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인들과 한인회 회장단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동포 가정 남아의 이중국적 문제와 한국병역의무에 대한 문제 및 대책방안이 논의되었다.

참가자들은, 해외동포들의 특수한 상황과 현실적 고충이 한국의 행정입법 담당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관련 정책결정 시에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5년 성요한 한인교회에서 열린 시민협회 주최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에 참석한 한인들의 모습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แนक्स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부여 인삼창

홍삼 6대기능
[식약처 인정]

- 항산화 작용 [노화억제]
- 기억력 개선 [기억력 개선]
- 면역력 증진 [환경호르몬 장애 예방]
- 피로 개선 [기력회복]
- 혈액순환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알고 계신가요?
매장을 찾은 많은 손님들께서 근절을 지분하고 홍삼 음료제품을 구입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수출용 라벨 표기에 Ginseng Drink Beverage 라고 적혀있을경우 홍삼 함유량은 아주 미미한 제품입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한국 예매율 1위 택시운전사 흥행조짐

〈암살〉 〈베테랑〉 넘어 흥행 청신호
무료티켓 이벤트 택시운전사 오행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8월 11일 보스톤 다운타운 AMC 로우스극장에서 개봉하는 〈택시운전사〉가 국내 실시간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한국 영화판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군함도'는 8월 1일(한국시간) 40만1,833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이로써 개봉 8일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이 확실해졌다.

〈택시운전사〉는 같은 1일(한국시간) 실시간 예매율 43.3% (173,165명)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위 〈군함도〉예매율 15.6%와 큰 격차다. 스크린 독점 논란 속에서 흥행 질주를 이어가는 〈군함도〉를 제치고 어떤 개봉실적을 기록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의 예매량은 한국 개봉 전일 오전 8시 기준(76,784명)으로도 2015년 쌍둥이 천만 관객 영화로 이름을 올리며 여름 시장을 이끌었던 〈암살〉과 〈베테랑〉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예매량을 기록해 올 여름 천만 영화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택시운전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세계에 보도한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와 그를



태우고 광주로 간 서울 택시운전사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한 작품으로 제작 전부터 충무로와 관객의 큰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택시운전사〉는 〈암살〉, 〈곡성〉, 〈부산행〉 등이 초대되었던 북미 지역 최대 규모 영화제 판티지아 영화제에 한국 영화 최초로 공식 폐막작 선정 및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장훈 감독의 세련된 연출과 미술, 음향팀을 비롯한 제작진의 섬세한 역사적 고증을 통한 제작 과정, 여기에 80년 5월의 광주로 관객들의 감정이 유려하

게 흘러가며 영화에 몰입될 수 있도록 짜여진 스토리 라인이 주목된다.

〈택시운전사〉는 8월 11일 보스톤을 비롯한 북미 주요 도시 30여 개의 스크린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개봉을 기념하여 무료티켓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는 〈택시운전사〉 오행시를 본 기사에 댓글로 달아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마감은 8월 9일 오후 1시까지이다. 참여한 독자 중 총 11명을 선정해 무료 관람권 2매를 증정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미주한인풀뿌리회의(KAGC) 워싱턴에서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KACE시민참여센터가 주축이된 미주한인풀뿌리회의(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가 7월 24일 26일까지 워싱턴 의회와 하얏트캐피탈호텔에서 진행됐다.

2014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의 미주한인풀뿌리회의는 유대인들이 연례 풀뿌리 모임을 통해 미 정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모델로 미주 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고자 만들어진 컨퍼런스다.

올해 행사에는 300여 명의 미주 지역사회 리더들과 차세대들이 참여하여 주류 정치인들에게 한인 인재들의 안정적 비자 발급 및 취업,

북핵 문제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이산가족 상봉 등의 정책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미 주류 정치인들과 안호영 주미대사가 참여하였으며 한국 정계에서는 국외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경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한미정력신장연대 김성혁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미 주류 정치인들이 공식 발언을 통해 '평화 통일'을 언급한 것은 보기드문 일이며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좌로부터)김성혁회장, 리더리 상원의원, 브라운 대학교 저스틴 리, 이현준, 사룟테정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국책연구기관 KISTI, 보스턴 트라이벌비전과 협력키로

KISTI 트라이벌비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현지 시장 진출 도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의 대표적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 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은 디지털 마케팅회사 트라이벌비전(TribalVision)과 손잡고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및 유럽시장 진출을 본격화 한다.

KISTI의 중소기업혁신본부 최윤정 실장과 변정은 연구원은 8월 1일 보스턴 다운타운 소재 트라이벌비전 본사를 방문, 트라이벌 비전 크리스 시온시 사장과 정보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윤정 중소기업혁신본부 사회기회 분석실 실장은 “KISTI와 트라이벌비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빅데이터 콘텐츠 활용을 통한 글로벌 기술 사업화의 생태계 구축

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분야 사업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체결식에서 밝혔다.

최실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며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 KISTI의 빅데이터와 트라이벌비전의 디지털 콘텐츠 전략 마케팅 경험이 결합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트라이벌비전은 로드아일랜드에서 출발해 보스턴에 진출한 마케팅 및 광고 대행사로서 빅데이터로 소비자 구매패턴을 파악해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을 추진해 왔다.



크리스 시온시 사장과 최윤정 실장

팅을 추진해 왔다.

트라이벌비전의 크리스 시온시 사장은 “이번 협약은 세계 최고의 기술들의 융합이다.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 기술과 기업들을 도와 성장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트라이벌비전의 마케팅을 결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KISTI와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중소)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KISTI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평가모델’을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했을 때 경쟁력을 시뮬레이션한 뒤, 그 결과를 수치로 제공해 시장경쟁력을 파악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 기업들의 실제적

미국 시장 진출은 트라이벌비전이 디지털 마케팅으로 돕게 된다

KISTI와 트라이벌비전은 2014년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3년간의 협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공식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editor@bostonkorea.com



파인드매스머니닷컴(findmassmoney.com)을 통해 찾지 않았던 돈을 클레임한 후 진행상황이 어떤지 확인할 수도 있다

재무부, “잠자고 있는 돈 찾아가세요”

▶▶1면에 이어서

(Notary Public)을 받아야 했으며 과거 거주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했기 때문에 청구를 미루다 시간이 지나버려 청구 가능 여부조차 불분명해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일단 웹사이트에서 찾아가지 않는 돈이 발견된 경우 청구를 위해 자세한 개인 정보 기입을 요구하며 정보 기입 후 청구를 누르면 본인의 이메일로 자세한 금액 내용과 청구 신청서가 발송된다. 첨부 서류도 운전면허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 등만 있으면 된다.

주로 찾아가지 않은 돈들은 은행 잔고, 세금리턴 금액, 배당금 등이다. 기자가 장(Chang)이란 성으로 검색하자 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만도 10명 가까이 발견할 수 있었다

. 최(Choi)씨를 검색한 결과 과거 보스턴에서 버클리에서 재학했던 가수 최성수 씨와 같은 이름이 검색되기도 했다.

이 파인드매스머니닷컴(find-massmoney.com)을 통해 찾지 않았던 돈을 클레임한 후 진행상황이 어떤지 확인할 수도 있다.

기사를 제보한 보스턴봉사회 윤희경 회장은 “이를 통해 CVS에 있던 \$14를 돌려받게 됐다”며 “이를 널리 알려 많은 한인들이 자신의 돈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드보라 골드버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수석변호사였던 한인 세라김 변호사를 재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턴 다운타운 소재 트라이벌비전에서 KISTI와 트라이벌비전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마크 주, 유지니아 리, 알레시아 세코치아, 켈리 체이시, 크리스 시온시, 최윤정, 임수지, 변정은, 리아 와튼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 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고집부리지 않는 베이커 매스헬스 수혜자 축소 철회 수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MA 주 의회와 대결 대신 타협을 선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지사가 제안한 매스헬스(메디케어의 MA주 이름) 수혜자 14만 명 축소 법안을 거부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은 7월 26일 매스헬스(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위해 기업들에게 2억 달러를 추가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방안만을 승인하고 사업자들이 조건으로 제시한 건강보험비용 절감안인 매스헬스 수혜자들의 축소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8월 1일 기업들에게 2억달러를 추가로 부가하는 예산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는 그동안 매스헬스비용 절감안이 첨부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의원들에게 엄포를 놓았지만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했다.

의회는 지난달 이 법안을 116대 41, 즉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었다. 주지

사가 거부했다라도 의회는 이를 가결시켜 거부권을 무산시킬게 분명했다. 의회가 주지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이번이 두번째였기에 세번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주지사와 의회가 정면대결시 주지사가 입어야 하는 타격이 훨씬 크다. 주지사가 이번 법안 서명으로 입은 타격이 없지는 않다. 그는 지금껏 기업 친화적인 성향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했다는 점으로 그의 이력서에 상흔을 남기게 됐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에 대한 양보로 향후 실제로 매스헬스비용 절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회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법안 형성에 있어 민주당 의회와 협치를 잘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얻을 수 있게 됐다. 매사추세츠주는 매스헬스에 연간 169억달러를 쓰고 있다.

일단 이번 법안의 통과로 2인가족 기준 연 가계소득이 2017년 연방 빈곤선 100%인 \$16,240에서 138%인 \$21,60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단 매스헬스에서

밀려나지는 않게 됐다. 매스헬스에서 헬스케어 플랜으로 보험이 이동하는 경우 보험료를 내지는 않지만 의사방문 시 코페이먼트 등 소득의 3%를 본인부담해야 해야 하는 상황은 당분간은 일 단락 됐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명당 근로자의료보조세금(EMAC)이 \$51에서 \$77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연간 7천5백만불의 추가소득을 얻게 된다. 하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직장 보험이 아닌 매스헬스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 근로자 당 \$75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2년 한정적 수수료다.

일단 현행의 매스헬스가 지속되었지만 주지사와 의회는 조만간 연 190만 매스헬스 수혜자들에 대한 비용 절감 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도 매스헬스비용절감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베이커 측은 자신했다. hsb@bostonkorea.com



8월 2일 백악관에서 영주권 발급 축소안을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영주권 발급 절반으로 줄인다

▶▶1면에 이어서

또한 비자로터리 제도를 철폐한다. 영주권 추첨제는 미국내 거주자가 적은 나라의 지원자들에게 추첨으로 연 5만개의 영주권들 발급하는 제도였다.

영주권 발급을 가산점을 부과해 허용하는 메리트제도로 변경한다. 영어구사능력,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숙련도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점수를 산정해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메리트 영주권 제도는 캐나다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모델을 모방한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상원의원은 이민자들 편가르기도 나섰다. 이민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책략이다. 코튼 의원은 이민자 옹호그룹이 미국의 영주권제도를 “미덕과 관대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하지만 자신은 이 보기에는 “미국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관심이 없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상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영주권 제도 변경이 미국 근로자들 뿐만 아니

라 소수민족 이민자들도 저임금 직업들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과 직업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민자들과 소수민족 근로자들도 있다”고 트럼프는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표는 60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경우 통과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권리그룹 그리고 지역구에 이민자들이 많은 중도성향 공화당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권리그룹들은 이민자들이 이미 경제 활성화에 기록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범죄율도 미국인들에 비해 적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의회도 매스헬스 비용절감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베이커 측은 자신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아기, 유아,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실내 놀이방 가이드

인사이드 플레이그라운드 (Inside PlayGround)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실내 놀이방은 취학 전 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다. 아이에게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고 활동적이거나 정적인 아이 모두에게 맞는 놀이 도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또래 아이들을 만나 함께 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보스톤의 패밀리 매거진 마미포핀스(mommypoppins.com)이 소개한 7개의 실내 놀이방이다.

상상: 커뮤니티 & 예술 센터 (Imagine: A Center for Community & the Arts)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실내 놀이방으로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모든 연령이 이용 가능하나 5살 미만의 아이가 놀기에 가장 좋다. 플레이 타운으로 꾸며져 있는 위층과, 등반 구조물, 볼 풀, 그네, 바운스 하우스 등이 구비된 아래층, 맑게 개인 날을 위한 야외 놀이터가 있다. 아이가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조용한 놀이공간이나 도서관,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는 탁구, 테이블 사커, 빌딩 완구, 활동 클럽이 마련되어 있다.

23 Bay State Rd., Cambridge, MA 617-661-0077

www.imaginecambridge.com

키즈 펀 스탑 (Kids' Fun Stop)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키즈 펀 스탑은 6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용 가능한 실내 놀이방이다. 활동적인 아이들을 위해 등산 구조물, 큰 미끄럼틀을 비롯한 타고 노는 장난감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좀 더 차분한 활동을 위해서는 아트 테이블이 있다.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기존의 놀이 공간 구역에 인접해있으므로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동시에 돌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어른들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

1580 VFW Parkway, West Roxbury, MA 02132, 617-325-0800

www.kidsfunstop.com

마마 & 미 크리에이티브 놀이공간 및 오픈 체육관 (Mama & Me Creative

Playspace and Open Gym)

6개월부터 3.5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곳으로 메인 플레이 공간 전체가 어린 아기들의 놀이터다. 멋지게 꾸며진 놀이공간에는 인형과 블록 등의 장난감이 마련되어 있으며 무브먼트 스튜디오에는 아기들을 위한 운동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Jamaica Plain Brewery Complex, 284 Amory Street, Jamaica Plain, MA 02130, 617-477-3432

www.mymamaandme.com

어린이 월드 실내 놀이터(Children's World Indoor Playground)

6개월 부터 8세까지 이용 가능한 실내 놀이방으로 비교적 최근에 문을 열었다. 기차 테이블, 돔 클라이머, 타고 노는 자동차, 자전거, 스쿠터, 레고, 주방놀이, 미끄럼틀이 있는 바운스 하우스, 아트 스테이션, 미니 트램펄린, 스낵 공간 등의 다양한 놀이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2세 이하를 위한 유아 놀이터에는 나즈막한 클라이머, 점퍼, 보행기 및 캐터필러 터널이 있다. 부모들을 위한 무료 커피와 와

이파이가 제공된다. 연중 무휴로 운영되나 생일파티로 예약 되었을 경우에는 즉석방문이 불가능하다.

465 Turnpike Street, Canton, MA 02021, 781-298-7148

www.childrensworldplay.com

인사이드 플레이그라운드 (Inside PlayGround)

6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실내 놀이방으로 바운서, 볼풀, 놀이 자동차, 운동기구, 책, 퍼즐, 레고, 미니어처 가구, 인형, 조명 및 자석 탐사 등의 놀이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주간 별로 운영되는 특별 활동이 진행된다. 자판기가 있는 스낵코너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와이파이가 주차가 무료다.

Inside PlayGround Watertown, 100 Parker Street, Watertown, MA 02472 617-923-1772

bostonindoorplayground.com

투게더 인 모션(Together in Motion)

투게더 인 모션에서 진행되는 수업과 그룹 프로그램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곳의 놀이방이 즉석 방문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듯 하다. 오픈되는 시간 동안 부모와 아이들은 부드러운 블록, 다양한 크기의 공, 터널 및 낙하산을 이용할 수 있다. 6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이다.

1 Broadway, Arlington, MA 02474

781-643-1377

togetherinmotion.com

토들러 타운(Toddler Town)

마리나 베이 스포츠 단지(Marina Bay Sports Complex)에 위치한 토들러 타운은 7개월 부터 6살 까지 이용 가능한 실내 놀이터로 큰 두개의 성, 유아용 놀이 공간, 터널, 타고 노는 장난감, 블록, 미니 슬라이드, 트램폴린 등 다양한 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된다.

Marina Bay Sports Complex, 260 Victory Road, Quincy, MA 02171

617-479-8700

www.marinabayssportsplex.com

sun@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골프 레슨

US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MICROBLADING
& PERMANENT
MAKEUP**

반영구 메이크업
자연눈썹
아이라인
입술

MA Licensed permanent cosmetics Artist

Jin 978.935.1395
52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MA 아시안 남성 간암 사망자, 전미 상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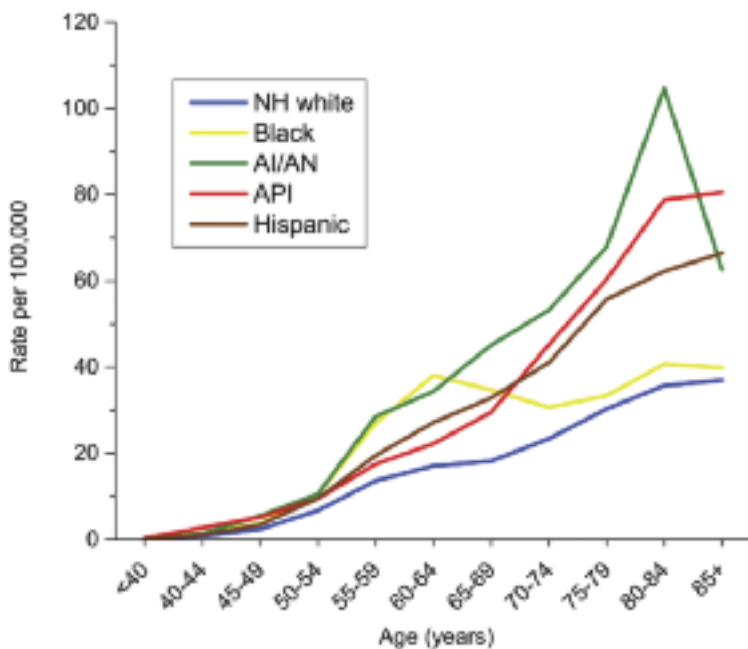
MA주 아시안 남성 사망자 22.1명, 백인 평균의 3.5배
80대 사망률 40대의 8배, 고령일수록 간암 사망률 높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지난 30여 년간 미국 내 간암환자가 두 배로 늘어난 가운데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 계의 간암환자는 미국 원주민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인종은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10만 명당 15.2명)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아시안 계(13.5명), 히스패닉 계(13명), 흑인 계(10.2명), 백인 계(6.3명)가 뒤를 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간암 사망률에 대한 지역별 조사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간암 사망률은 남성 10.1명(전국 9위), 여성 3.6명(20위)으로 조사되어 남성 사망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가 남성 15.3명, 여성 5.2명으로 미전역에서 남녀 통틀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남성은 루이지애나(12.3명), 하와이(12명), 텍사스(11.8명), 로드아일랜드(11.1명), 캘리포니아(11명), 여성은 하와이(5.0명), 텍사스(4.7명), 캘리포니아(이하 4.6명), 미시시피, 루이지애나가 뒤를 이었다. 미국 내에서 간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주는 남성은 노스 다코타(5.5명), 유타(6.2명), 사우스 다코타(6.5명), 여성은 노스 다코타(2.2명), 버몬트(2.3명), 뉴햄프셔(2.4명) 순이었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의 아시안 계 남성의 사망률은 22.1명으로 미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남성의 간암 사망률이 제일 높은 곳은 아이오와(30.0명)이며 그 뒤를 로드아일랜드(24.7명), 뉴멕시코(24.5명), 네바라스카(24.2명), 아칸소(24.3



미국의 80대 아시안계(API)의 연령별 간암 사망률은 40대의 2배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일수록 건강검진과 스트레스 관리, 식습관에 주의를 요한다

명, 미네소타(23.2명)가 이었다. 아시안 계 간암사망률이 낮은 곳은 플로리다(8.5명), 네바다(8.7명), 뉴저지(8.9명) 순이었다. 반면 매사추세츠 주의 아시안 여성 여성 사망률은 3.6명으로 전국에서 19위를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번 아시안 계 대상 조사는 뉴햄프셔, 버몬트, 메인 주를 비롯한 15개 주를 제외한 35개주를 대상으로 했다.

연령별 간암 환자수 조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간암 환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 계 환자의 간암 사망률은 50세에 인구 10만 명당 10명, 60세에 20명으로 점차 증가하지만 70세에 40명, 80세에는 8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고령일수록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스트레스 관리나 식습관 등의 생활패턴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진단된다.

간암을 일으키는 요인은 B형간염, 술,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과로, 흡연, 당뇨, 비만 등 다양하다. 한국인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B형 간염은 당장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태에서 과음을 삼가고 술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거나 흡연을 함께하는 습관은 삼가는 것이 좋다.

itshunne@bostonkorea.com



뉴햄프셔의 가필드 산에 오른 등산객이 박테리아 감염으로 중태에 빠지면서 관계당국은 개인 위생에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뉴햄프셔 등산객 박테리아 감염으로 한 때 위독

살 파먹는 박테리아, 감염경로는 밝혀진바 없어
전문의들, 밴드로 상처 보호하고 손 자주 씻어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뉴햄프셔 보건 관리 당국은 가필드산(Garfield Mountain)을 등반했던 플로리다 출신의 한 등산객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에 대해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마이애미에 거주중인 웨인 앳킨스 씨는 지난 6월 초 가필드 산을 등정했다. 그는 이날 등반 중에 발에 생긴 물집을 통해 박테리아에 감염되었다. 집으로 돌아 온 뒤 수포 등의 염증이 생겨 병원에 입원한 앳킨스 씨는 한 때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다. 패혈증 및 괴사성 근막염을 일으키는 스트렙토코커스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된 그는 현재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 앳킨스 씨는 “가필드 산에서 박테리아에 감염될만한 뚜렷한 문제가 없었다”고 현지 방송국과 인터뷰했다. 뉴햄프셔 보건국 대변

인인 제이크 레온 씨도 “등산객들이 산에서 희귀 질병에 걸릴 위험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괴사성근막염은 흔히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라고 불린다. 작년 여름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비롯한 미 남부지역을 강타했던 이 질병은 치사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들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처가 아닌 물집을 통해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경우는 2만5천분의 1로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괴사성 근막염은 피부를 통해 주로 감염되는 만큼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레온 대변인은 “만약 상처나 물집이 생겼을 경우 1차적으로 밴드같은 깨끗하고 마른 것으로 외부 요인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뒤 소독을 자주 하고 수영장이나 물에 접촉하는 것은 피하고 비누로 손을 자주 씻으라”고 권고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T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소매상 연합 세일즈 택스 인하 주민투표 추진

현행 6.5%인 세일즈 택스를 5% 이하로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영구 지정도 원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수천 명의 매사추세츠 소매상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세일즈 택스와 관련한 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들이 주민투표 안건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현행 6.25%인 세일즈 택스를 줄이는 방안과 여름에 간헐적으로 시행되어온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를 영구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소매상 연합은 세일즈 택스와 관련한 주민투표 법안을 몇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서 접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 법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매사추세츠 소매상 연합은 수 차례에 걸쳐 온라인 매장과 경쟁해야 하는 기존 오프라인 업주들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또한 세일즈 택스가 면세되는 뉴햄프셔와 인접해 있는 매사추세츠 주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강조해 왔다.

존 허스트 소매상 연합회장은 성명을 통해 "세일즈 택스를 줄이면, 영세한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

다"라며 "게다가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노년층이나 노동자 가족 같이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허스트 회장은 주 의회에서 올해 여름에는 세일즈 택스를 면제해 주는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법안에 대해 표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다.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는 소매상과 쇼핑객들에게 모두 환영을 받아 왔지만, 주 정부의 재정 상태 때문에 작년부터 2년 연속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소매상 연합은 최근 몇 주 동안 회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주민투표 안건

으로 추진할 법안 후보 4개를 정했다. 지난 1일에 발표된 법안들은

- 세일즈 택스를 5%로 낮춘다
- 세일즈 택스를 5%로 낮추고 8월에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를 영구적으로 지정한다
- 세일즈 택스를 4.5%로 낮춘다
- 세일즈 택스를 4.5%로 낮추고 8월에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를 영구적으로 지정한다

소매상 연합은 4개의 법안을 법무부에 접수 시켰다. 법무부에서는 주민투표 안건으로 청원된 법안들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게 된다. 소매상 연합은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뒤에 4개의 법안 중 어떤 법안을 추진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비정기적으로 지정되었던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영구적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찰스강 더러워,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보스톤의 상징과도 같은 찰스강이 깨끗하지 않으니 강물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다.

주 환경부에 따르면 찰스강 하류 지역에서 시아노박테리아가 급증해, 강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몸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찰스강 하류 지역은 보스톤과 캠브리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사이언스 뮤지엄 인근 지역이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강물에서 멀리 떨어져서 산책을

시키고, 애완동물이 찰스강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주 환경부에서 차후에 추가적인 공지를 하기 전까지는 물을 마시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주 환경부는 찰스강물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시아노박테리아 농도가 인체에 무해한 수치까지 내려가면 공지를 예정이다.

시아노박테리아는 늦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급증한다. 주 환경부에 따르면 시아노박테리아의 농도가 높은 물을 마시거나 인체에 닿을 경우 독성 때문에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상임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피싱사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보스토니안, 일년 중 이들은 주차장 찾는데 허비

보스토니안 주차하는데 1년에 53시간, \$1,111 소비
미국인 61% 주차 스트레스, 23% 주차시비 겪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은 미국에서 주차장 주차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스토니안들은 1년에 이를 이상을 주차 공간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통행 전문 분석업체인 INRIX는 최근 미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운전자들이 주차에 소비하는 시간과 주차요금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스톤의 운전자들은 주차공간을 찾는데 1년에 평균 53시간 \$1,111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 시민들은 도로 위에 주차하기 위해 매일 약 8분의 시간을 소비해 미국에서 7번째로 도로 위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운 도시로 뽑혔다. 또한 보스톤 시민들은 주차장을 찾는 데에도 도로 위 주차와 비슷한 약 8분의 시간을 허비했다. 노상주차장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도시는 뉴욕으로 하루 평균 15분, 1년에 107시간(노상 15분/일, 주차장 13분/일)을 허비했다. 그 뒤를 LA(연 85시간, 노상 12분/일, 주차장 11분/일)와 샌프란시스코(연 83시간, 노상 12분/일, 주차장 11분/일)가 뒤를 이었다.

노상에 2시간을 주차하기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지역은 시카고였다. 시카고 시민들은 2시간을 주차하는데 평균 \$13를 투자했다. 그 뒤를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이 뒤를 이었

으며 보스톤은 \$7.50으로 5위에 기록되었다.

2시간짜리 주차장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뉴욕이었다. 뉴욕 시민들은 노상에서는 2시간동안 7달러를 소비했지만 주차장에서는 평균 \$32.80를 사용했다. 보스톤은 \$25.59를 사용해 뉴욕에 이어 뉴욕에 이어 주차장이 비싼 도시 2위에 올랐다. 시카고(\$21.54)와 워싱턴(\$18.10)은 3위와 4위로 보스톤의 뒤를 이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주차요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도시도 뉴욕이었다. 뉴욕 시민들은 1년에 주차요금으로 평균 \$2,243을 지불하였다. LA와 샌프란시스코가 각각 \$1,795와 \$1,735로 뒤를 이었고 보스톤 시민들은 평균 \$1,111을 지출해 미국에서 연간 주

차요금을 가장 많이 내는 도시 7위로 뽑혔다.

이번 조사는 INRIX가 미국 내 6,000여명의 운전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네비게이션 운전 패턴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INRIX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1%는 주차공간을 찾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42%는 주차공간을 찾다가 약속에 늦은 경험이 있으며 34%는 주차문제 때문에 차량운전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3%는 주차 문제로 다툼과 언쟁을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도로 위 주차에 대한 선호도는 남성이 51%인 것에 비해 여성은 64%로 여성이 남성보다 도로 위 주차를 선호했다. 도로 위 주차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여성은 편리함과 안전함을 이유로 꼽은 반면 남성은 저렴한 접근성이 좋다는 대답이 주를 이뤘다. itshunne@bostonkorea.com



보스톤 주민들은 주차장을 찾는데 미국에서 7번째로 많은(하루 8분)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먼웰스 애비뉴, 매스 파이크 연일 이어지는 교통 대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90번 도로인 매스파이크(Masspike)를 통해 출근하는 수많은 최악의 교통대란을 대비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90번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휴가가 가능한 경우 출근을 감행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

90번 매스파이크 위에 있는 커먼웰스 애비뉴 브리지 대체공사가 26일부터 시작돼 90번 도로가 반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90번 도로는 31일 월요일부터 향후 2주동안 평시보다 약 90분 더 정체될 것이라고 조나단 굴리버 주고속도로조정관은 밝혔다.

굴리버 조정관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보스톤으로 진입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곳도 적어 우회할만한 도로도 없다"고 밝혔다.

비교적 차량이 적은 주말 교통 상황도 좋지 않았다. 한때 정체 차량이 무려 4마일이나 늘어 있을 정도였다. 매스파이크의 보스톤 방향을 1개 차선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커먼웰스 애비뉴를 다니는 그린 라인 B 전철은 블랜드포드 스트리트(Blandford St.)부터 뱍콕스트리트(Babcock St.)까지 운행이 중단된다. 승객들은 두 역에서 하차해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한다. 교각은 현재 셔틀버스와 도보자, 자전거 탑승자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린라인 B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평상시보다 15분 정도 더 여유를 갖고 출발해야 된다.

보스톤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매스파이크를 이용하지 말고 커뮤터 레일을 이용하고 교통당국은 권장했다.

MBTA는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커뮤터라인 환승 주차장의 상황을 매 30분마다 MBTA 트위터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커뮤터 레일은 주중 평상시 스케줄과 같이 운행한다.

이번 커먼웰스애비뉴교각 대체공사는 지난 26일 수요일 시작해 8월 14일 1차 공사가 완료된다. 두 번째 단계의 공사도 2018년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올해와 유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Century 21

영어 잘해야, 새 이민정책 두고 백악관-기자들 설전

영어 · 학력 · 기술 수준 요구해 이민 조건 높아져
정책 설계한 밀러 고문, CNN · NYT 기자들과 설전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고문이 새 이민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설전을 벌였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2일 밀러 고문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새 이민정책을 설명했다. 이는 공화당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기술 · 성과주의 이민제도'다.

연간 110만건에 달하는 영주권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민 승인 기준이 높아진다. 특정 기술을 보유하거나 높은 수준의 학력과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영어 잘하는 근로자를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밀러 고문이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밀러 고문은 강경한 태도로 기자들과 설전을 벌였다.

CNN의 짐 아코스타 기자는 자유의 여신상에 쓰여진 글귀 '가난에 찌들어 지친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를 언급하며 "영어를 잘해야 한다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영어를 못하면 이곳에 오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밀러 고문은 "영어 능력은 미국 이민 심사 과정의 하나이며, 자유의 여신상의 글귀도 원래 없었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코스타 기자가 "이번 이민 정책은 영어를 하는 영국인과 호주인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밀러는 "영어를 하는 전

세계인들에 대한 편견"이라고 응수했다.

밀러 고문은 뉴욕타임스(NYT) 기자 글렌 트리시와도 설전을 벌였다. 밀러 고문은 글렌 기자의 비판에 "뉴욕타임스는 미국련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글렌이 "미국련 이민자의 유입과 미국의 일자리엔 상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기자들과 설전을 반복하던 밀러 고문은 NYT 기자에게 "이제 미국 노동자를 위해 보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고 CNN 기자에게 "과열된 것 같아 사과한다. 그렇지만 당신의 추론은 매우 거칠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yiji@news1.kr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고문



6월 17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졸업식

법무, 하버드 아시안학생들 역차별 조사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가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아시안과 백인에 대한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백인 역차별 혐의가 인정되면 미 법무부는 해당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일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법무부 문건에는 대학 입학에서 벌어지는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몰색 중이라며 관련 조사와 소송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입학시 차별을 받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의도적인 인종 차별"이란 표현을 봤을 때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흑인과 라틴계가 혜택을 받는 사이 역차별을 받는 아시안 학생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됐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에서 4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다른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게끔 기준이 있어야한다고 했으나 다양한 인종에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면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학교와 대학측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민 조사단 차원이 아닌 관료들이 포진한 법무부 내 시민권 담당 부서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점이 특히 눈여겨볼만하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법무부의 시민권 부처를 보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보수성향 닐 고서치 전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는 등 우경화 정책 추진을 노골화했다. 특히 책사 격인 수석고문에 극우성향 스티브 배넌을 앉힌 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취임 후 두달만인 3월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도 했다.

yjw@news1.kr

만 자원 높은 고국향운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100% 의료비 지원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100% 의료비 지원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100% 의료비 지원

오엘 성형외과

오엘 성형외과 휴람이벤트

오엘 성형외과 휴람이벤트

오엘 성형외과 휴람이벤트

오엘 성형외과 휴람이벤트

We Help Good Business Become Great

LEE AND YUN 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ING

We find more buyers and sellers for you. We also offer a wide range of matching services to recruit the best international candidates for your company. We've got the necessary tools and expertise to help you grow your business, and learn how to properly manage your expansion, or your next project. We partner with our clients to develop engaging marketing strategies, design high quality and scalable solutions, and build rich brand experiences.

781.854.7608(USA) 070.4239.7608(Korea)

www.leeandyun.com

LEE AND YUN 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ING

We find more buyers and sellers for you. We also offer a wide range of matching services to recruit the best international candidates for your company. We've got the necessary tools and expertise to help you grow your business, and learn how to properly manage your expansion, or your next project. We partner with our clients to develop engaging marketing strategies, design high quality and scalable solutions, and build rich brand experiences.

형제 떡집

GRAND 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형제 떡집

GRAND 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HITRONS MASSAGE CHAIR & MATTRESS

이태리 최고 명품 매트리스 가전제품 종합 전시장

24개월
무이자

침실 문화의 혁명!
모션베드 출시!

- 잠자는 동안 편안하게 목과 허리를 스트레칭 해주어 목과 허리통증에 효과
- 우주복 제작시 사용되는 Outlast® 사용 추울때는 보온, 더울때는 열을 떨어트리는 첨단소재 사용
- 누웠을때 몸의 각부분을 골고루 바쳐주고 움직일때 편안한 하도록 부드럽고 탄력이 있음
- 독성을 100%제거하여 OEKO-Tex® Standard 에서 인증
- 20년 Warranty



한국산 가전제품 히트상품 대세일



세계최초!
세상에 없던 의류 관리기
LG TROMM styler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초미세먼지, 황사... 반쯤없이
깨끗하게~



FS401VGA1
\$384.99 - 349.99



FS401WAS1
\$549.99 - 499.99



LG 로봇청소기 붐바



신일 제습기



쿠쿠 압력밥솥



스마트비데 **BIG SALE**
누가 어디서 사용해도 편리하고 안전한 비데
SMART BIDET SB1030 ELECTRONIC \$320.00 - \$249.99
SMART BIDET SB2030 ELECTRONIC \$420.00 - \$299.99



태진 노래방기계 **BIG SALE**
최대 재고 보유
최신형 노래방기계
35,000곡 이상 수록, 생동감 넘치는 배경화면, 신곡 인터넷 업데이트 가능!

삼성 덜채 대우 **김치냉장고 대세일**



목걸레 청소기의 종결자!



즐거워지는 청소시간!
신일 트윈회전 스팀청소기
rollings turn
\$290 - \$265



무선
전동
빨리
SWING
듀얼롤러청소기
\$179.99
\$280
THE NEW SWING - 7000

ORDER NOW www.hitrons.com

add.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tel. 781-862-6867

HITRONS MASSAGE CHAIR & MATTRESS

전지역 무료 배송

보스톤지점 Grand Opening

Inada Dreamwave
일시불 구입시
Hitrons Gift Card
\$800 무료증정
(8월 30일까지)

전신 마사지와 효과를 입증한 **[이나다안마의자]**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속 혈관을 자극해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노인성 질환,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도 좋아 많은 의사분들이 선호하고 추천하는 마사지 체어입니다.

Made in JAPAN

치료기능이 더욱 강력해진
이나다 2017년 NEW Dream Wave 출시



DREAMWAVE
\$265 / 36M
+ Tax
36개월 무이자
7년 Warranty

NEST
\$7,900
\$6,000
24개월 무이자

FLEX 3S
\$7,500
\$4,300
12개월 무이자

1 열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

106 개의 에어백이 온몸의 근육속 깊은 곳에 있는 혈관을 자극해 혈액순환 개선 및 림프마사지 기능으로 노폐물 제거 효과 및 손가락 끝 및 발가락 끝의 모세혈관까지 자극을 시켜 당뇨환자에게 효과,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된
이나다 안마의자의
놀라운 효능

2 근육 통증 및 수축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노화로 수축된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경직된 신경을 풀어주고 침단 센서로 지압점을 정확히 찾아 뭉친 부위를 해소시켜 주어 근육통증을 해소.

3 목과 어깨 등의 탁월한 안마기능

특수 제작된 베개 타입 에어백 유닛으로 경추 및 승모근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안마해주며 Human 안마 기법으로 사람의 손과 같은 동작으로 부드럽고 정확한 마사지.

4 불면증 해소

106개의 에어백이 온몸의 신경을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해소시켜 불면증 해소에 탁월한 기능.

5 체형 및 골반 교정 기능

목 아래 경추부터 요추까지 뼈를 둘러싼 근육들의 마사지로 수축된 근육을 풀어주어 활성화시켜 뼈를 지탱하는 힘을 강화시켜 척추 교정 기능. 골반 아래 부분의 허벅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리디미컬한 안마기능 및 체형 교정 전문가들의 교정기법, 탑재된 특수 스트레칭 기능으로 골반 교정 및 척추 교정 기능.

이나다
안마의자
체형교정
골반교정
탁월한 효과!



ORDER NOW www.hitrons.com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빌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201-417-5350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점 몰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 201-417-5350
(아비 플라자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201-417-5350 / 571-235-7900
(Lotte Plaza Market(Ellicott City))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장기화하는 달러 약세, 금융시장의 지형도를 바꾼다

다국적 초대기업, 에너지 기업, 이머징 수혜

(서울=뉴스1) 정해민 기자 = 미국 달러 가치가 고점을 찍고 7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달러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트레이딩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달러 약세는 증시, 신흥국 자산, 원자재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게끔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달러 약세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군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달러 약세는 해외 고객들이 미국 상품을 살 구매력을 향상시킨다. 미국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자연히 커진다. 이는 다국적 대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

골드먼삭스의 '고(高) 해외 익스포저 주식' 바스켓은 올해 들어 11% 올랐다. 비교적 내수 기업들에 집중하는 주식 바스켓에 비해 아웃퍼폼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09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중심의 S&P500 상승률도 중소형 내수주 중심의 러셀2000을 5%포인트 정도 웃돌고 있다.

2분기 중 달러 가치는 3.2% 떨어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사비타 수브마라니안 미국 증시 전략 팀장은 이러한 달러 약세가 다국적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개선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메가캡(초대기업)의 수는 스몰캡의 두 배에 달했다. 스몰캡 벤치마크는 예상보다 부진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에 비해 30%

정도 적었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에 유로 가치가 뛰면서 유럽 지역의 다국적 기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럽의 애널리스트들은 유로화 강세가 해외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실적 전망을 낮춰 잡았다.

달러 표시로 가격이 정해지는 자원은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로 수혜를 입는다. 게다가 중국의 수요 역시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리와 철광석 등의 주도로 산업용 금속 가격은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글로벌 원유 과잉 공급이 심화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나는 와중에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잠시 되찾았다.

원자재 호황은 증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BofA메릴린치의 고객들은 7월24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만 에너지주에 2억1200만달러를 투자했다.

로이트홀드그룹의 짐 폴슨 최고투자전략가는 "달러 가치가 지금 거래

되는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유가는 배럴당 최소 60달러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주는 다시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달러 약세는 미국 회사채에 겹쳐진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회사채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또한 원자재 호황으로 최근 회사채 시장에서 특히 부진했던 에너지 기업 회사채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신흥국 자산 시장은 달러 약세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시장일 것으로 분석된다.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브라질까지 다양한 신흥국의 국채는 랠리를 펼치고 있다. 달러약세는 달러 표시 채권의 상환 비용을 낮춘다. 비스포크투자그룹의 조지 피르케스 거시 전략가는 "약달러는 특히 달러가 부족한 신흥국 시장의 대출 환경을 완화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중앙은행에도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신흥국 채권 랠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emingway@news1.kr



2017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 전시된 2018년형 기아 스텔러

자동차 판매 부진한 이유... 자율주행 · 전기차 목전

(서울=뉴스1) 정해민 기자 = 미국 자동차 시장의 부진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운전자 및 등록 자동차 수가 늘고 있지만, 자동차 판매는 감소하는 중이다. 이 현상에 대해 블룸버그는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차, 전기차 혁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20년 동안 면허 등록된 운전자 수는 1년에 200만 명씩 늘었다. 동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수도 300만 대씩 증가했다. 게다가 미국 경제 상황도 긍정적이다. 노동 시장은 견고하고 비교적 자동차 대출을 받기가 용이한 상황인 데다 기름값마저 저렴하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자동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140만 대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교체율'에 주목했다. 이는 차량이 폐차되는 빈도를 뜻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업체들은 업계 불황이 닥칠 것임을 예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 동안 매년 1300만 대의 차량이 폐차됐다. 지난 5년간 판매된 차량의 수에 현저하게 못 미쳤다. 차량을 업그레이드 하려

는 소비자들에 힘입어 자동차 업황은 수년간 뜨겁게 달궜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역전됐다. 더 많은 차량이 도로 위에 잔존하게 되고, 더 적은 차량이 퇴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여전히 자동차를 한 대 이상 보유하는 습관이 있지만, 차량을 보유하는 연한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주행 중인 자동차는 평균적으로 2005년에 제조됐다. 블룸버그는 그 이유로 지난 15~20년 동안에 생산된 자동차는 그 이전 시기의 자동차에 비해 훨씬 안전할 것으로 신뢰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편, 빨라진 혁신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두고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자동차 업계의 경영진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자동차 시장의 둔화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hemingway@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THREE-WAY BEAN CURD SUSHI

H마트와 함께 떠나는 여름 피크닉! H마트가 전하는 삼색 유부초밥 레시피로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맛있는 피크닉 도시락을 싸보세요!



SEAFOOD | at shockingly-low prices



*During the shipping process, there may be delays or cancellations. Ship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et,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et item. All items located at major retail centers.
HAWAIIAN ISLANDS STORE: 41 Middle Street, Honolulu, HI 96813; Tel: 201-226-4520 / STORE: HAWAII. See - The Team - 1st - Sub Team - 10am

LTV · DTI 8월 3일부터 효력, 6·19 때 대출액 산정 고객들 멘붕

잔금 치르는데 보통 두달, 한도받아 자금 계획 세웠는데... 부동산시장 자금 플로우 무시한 전격 시행으로 혼란 가중

(서울=뉴스1) 전준우, 정재민 기자 = # 서울에 사는 김모씨(50)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두 아들과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두 달 전 6억원 대 30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다. 6·19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낮춰진 점을 고려해 3억6000만원은 대출받을 계획이었는데 8·2대책으로 눈앞이 캄캄하다. 기존 주담대 대출도 있어 예상 대출액의 반 토막이 나 버렸다.

8·2대책이 3일부터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며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상담 전화가 빗발치고, 간발의 차로 대출 신청을 마치지 못한 고객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

의 LTV·DTI를 40%로 조인다.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30%로 10%포인트 더 강화한다. 집단대출도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에 LTV 40%, 잔금대출엔 LTV·DTI 40%가 모두 적용된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곧바로 시행되면서 시중은행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시중은행장을 불러 "대출 쏠림현상이 없도록 금융회사 본점뿐 아니라 창구까지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신한은행은 2일 오후 전국 영업점장, 부지점장과 가계대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를 통해 변경 적용될 가계대출 지침을 전달하고, 해당 내

용을 3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NH농협은행도 전날 대출 상담·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완료된 건은 전산 승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이나 대출부서는 밀려드는 상담 전화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밤늦게까지 야근해야 했다"고 전했다.

투기지구로 지정된 강남이나 마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은행 영업점에 고객 상담 전화가 줄을 이었다. 대출 한도나 기존 1주택 소유자 추가 대출 가능 여부, 향후 재건축 진행 예정 지역 영향 등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6·19대책 시행 이후 부동산 계약을 하고, 대출 가능액을 상담만 받았던 고객들은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바뀐 규제로 자금줄이 막혀 혼란을 겪고 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를 때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데, 대출 신청이 2일까지 전산상 완료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면제)	50%	50%	70%	60%	70%	60%
주담대 미보유 (기본)	40%	40%	60%	50%	70%	60%
주담대 1건 이상 보유 (강화)	30%	30%	50%	40%	60%	50%

한 시중은행 직원은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고, 대출은 잔금 일로부터 한 달 안에 신청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6·19대책으로 LTV 70%→60%로 대출액을 산정했던 고객들은 8·2대책으로 절반밖에 대출을 못 받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에만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자유로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으로 관심을 돌리는 풍선효과도 감지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정부

에서 정한 별도의 규제가 없고, 은행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60~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은퇴 후 고정생활비 마련 목적 등으로 월세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자본 수익성을 고려해 기왕이면 서울 아파트를 선호했던 사람들이 이번 규제로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정부, 참여정부 실패 성찰 부동산 가격문제 물려서지 않겠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3일 8·2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 재관이라 실패할 것이란 야권 비판에 반박하며 새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려서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새 정부 출범 두달여만에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전임 정권의 '정책적 부추김'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냐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어떤 경우든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려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은 "이 정부는 출범 석달이 안돼 정책 일관성이란 점에서 최소한 5년간 부동산 시장을 새 구조로 안착시키는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수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결과적으로 가격 급등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국은 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종부세 도입 등이 담긴 8·31부동산대책 등 강력한 규제책을 설계했던 인물이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가 당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포함한 대출 규제를 다른 나라보다는 더 선제적으로 강화해 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겪은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비

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원인은 전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에서 찾았다.

김 수석은 "야당 (주장)에 대해 이 점은 짚어 보고 싶다. 새 정부 이후 두달만에 가격급등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건가"라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 등이 빛을 내서라도 집 사라는 전 정부 메시지였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 수석은 "보유세나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손을 대는 건 누진구조의 변화를 주거나 할 경우 상당한 서민의 우려가 예상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어떤 경우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새 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는 내년 4월부터 제일 늦게 시작한다. 그때까지 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까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보유세와는 상관없다"면서 내년 4월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저희가 강조하는 건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동결시키는 쪽으로 갈지, 임대사업 등록이라는 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진 봐야겠지만 후자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규제 · 금리 · 입주폭탄 퍼펙트스톰 직면 부동산시장, 전망은?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부동산시장이 '규제·금리·물량'의 트리플 악재에 직면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첩돼 나타나는 악재의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장기 안정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6·19대책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44일 만에 내놓은 새 대책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역대급 고강도 대책이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묶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처음으로 재개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지방 민간택지도 규제에 포함했다.

세금, 대출, 청약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규제 방안이 모두 포함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31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범위와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촘촘해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

으로 내다봤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기록적인 입주물량과 금리인상 등이 예고된 만큼 이와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이 장기 안정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올해 두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1.25% 수준으로 우리나라(1.25%)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미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면 통화정책 완화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14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근 수년간 시장을 떠받친 초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주택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0.5~1.0%포인트 오를 경우 주택 매매 가격은 0.3~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규제에 금리, 입주물량까지 트리플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할 것"이라며 "당장에는 조정효과를 거친 뒤 이후 하방압력이 강하게 작용해 장기적인 안정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Residential



Single Family

4 Sorens Way Bedford, MA
5 Bed, 3.5 Bath, 5,200 sf, Cut-de-sac,
Open house this Sat, Sun
Between 12-2pm
Asking **\$1,699,000**

Residential



Condo

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 Garage,
파킹, T-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

Commercial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Commercial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LISTINGS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6.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8.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9.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10.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11. 미림 식품 : Allston **SOLD**
12.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
13.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14.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
15.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
16.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
17.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
18.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

NEW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

Commercial



한식&일식 식당

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Commercial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20,000**

Commercial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Commercial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Commercial



한국식당

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Commercial



세탁소

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북한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미 본토 도달

"각도 낮춰 발사할 경우 비행거리 1만400km"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북한의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 이후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북한은 28일 밤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4일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두 번째 이뤄진 발사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성공을 발표하며 최대고도 3724.9km까지 상승해 거리 998km를 47분12초간 비행해 공해상에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차 때보다 개선된 수준이다. 북한이 지난 4일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최고고도 2802km, 비행거리 933km로 분석됐다. 북한의 ICBM이

뉴욕, 보스턴 등 미 동부 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참여과학자연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데이비드 라이트 연구원은 북한이 각도를 낮춰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비행거리가 1만 400km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라이트는 이날 CNBC에서도 북한의 ICBM이 수도 워싱턴DC까지는 못 미치지만 뉴욕또는 보스턴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의 마이클 엘먼 연구원은 최소 비행거리를 9500km로 추정하며 "북핵 갈등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빠른 속도로 줄어 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엘먼 연구원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한달도 채 안돼 두 번째 시험발사에 성

공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북한은 연말 전까지 수급할만큼 믿을 만한(reliable) ICBM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며 이런 무기와 시험발사는 세계를 위협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를 약화하며 북한 주민의 권리를 빼앗게 된다"고 이번 도발을 비난했다.

lchung@news1.kr



북한이 공개한 ICBM '화성-14'의 모습 (사진출처: 노동신문)



북한의 ICBM 발사 성공에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 (사진출처: 노동신문)



북한이 공개한 ICBM '화성-14'의 발사 장면 (사진출처: 노동신문)

'코리아패싱' 우려 해소 나선 정부...우리측 해명과 전략은

정부 "한미 공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한미, 대화 선제 조건 구체화해야"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실험을 잇따라 성공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중 빅딜설, 대북 군사옵션, 미북 대화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면서 '운전석론'을 내세운 우리 정부의 부담도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내세워 북한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과 관련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외부에서 코리아패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트럼프

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둔 상황에서 한미간 대화도 과거보다 많고 공조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코리아패싱론을 반박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대화가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8일 ICBM급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맞상대 대상이 미국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미국을 협상 상대로 지목한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미국 간 북미 대화 가능성이 남북 대화 가능성보다 높게 점쳐진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 문제를 두고 중국을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미중간 빅

딜설이 제기되거나,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론 등의 군사적 옵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코리아패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대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한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이 이같은 절차를 받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가 개회된 상황도 아니고,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구도도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리아패싱 우려는 시기 상조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나가기 전에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의 선제조건'이라는 점을 내걸게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군다나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춰봤을 때 분명한 조건이 제시될 필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는 미국도 즉각 대화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에 대한 선제조건을 마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미국이 대화를 언급하기 시작한 만큼 한미가 선제조건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ijung@news1.kr

러시아, 제재로 북핵 못해결 또 강조 北·美 대화하라

(서울=뉴스1) 김해지 기자 = 러시아 유엔 주재 대사가 최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제재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북미간 대화'를 강조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바실리 네벤자 신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일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제재란 더 강력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네벤자 대사는 제재의 대안으로 "정치적 대화"를 들면서 "모든 당사국, 가장 일차적으로 미국과 북한을 향해 여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네벤자 대사는 북핵 문제란 절대 쉬운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 주도로 안보리 내에서 회람되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또다시 공개

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앞서 외무차관인 겐나디 가틸로프를 통해서도 "결의안과 관련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럿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중국 역시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네벤자 대사는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와도 미러 관계와 북한 문제를 놓고 대화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만남은 네벤자 대사가 임무를 정식으로 시작하며 서로 첫인사를 나누는 성격으로 알려졌다.

네벤자 대사는 전임자인 비탈리 추르킨 대사가 지난 2월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신임 대사다.

icef08@news1.kr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유엔 주재 대사 (사진출처: 유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는 2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남·북한 병사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PR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worldpay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공: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진료 & 성형 수술을 위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고성형, 눈성형, 가슴성형, 지방흡입, 지방이식, 안대안경 전문
렉스성형외과

당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최상의 성형외과에서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세요.

- 최고의 전문 의료진 구성 - 30년 이상의 의료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
- 최첨단 의료 장비 - 최첨단 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상의 의료 서비스 -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상의 의료 서비스 -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안검, 하안검
상안검: 449,999 - 168,335
하안검: 889,999 - 168,335

스마트 리프팅
리프팅: 800,000 - 800,000

폴페이스 지방이식
폴페이스 지방이식: 280,000 - 200,000

올인원 지방흡입
올인원 지방흡입: 880,000 - 280,000
올인원 지방흡입: 600,000 - 450,000
올인원 지방흡입: 400,000 - 350,000

정재훈 대표원장

- 최상의 의료 서비스
- 최상의 의료 서비스
- 최상의 의료 서비스
- 최상의 의료 서비스
- 최상의 의료 서비스

부가세 관련 정보

부가세 관련 정보

김수남

1-844-DOHURAM 11-844-364-8729

www.huram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할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헌
교정 전문의

이재용, 대통령에 무슨 부탁을 한다는 생각조차 한 적 없어

차 전 대통령 독대시 부탁할 분위기 전혀 아니었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반박하며 "대통령에 무슨 부탁을 하겠다고 생각한 적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첫 공판 이후 118일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은 전날에 이어 9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2014년 9월 15일 1차독대(5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2015년 7월 25일 2차독대(30~40분, 삼성동 안가), 2016년 2월 15일(30~40분, 삼성동 안가) 등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 했던 1차 독대와 승마지원이 한화보다 못하다며 질책한 2차 독대, JTBC와 외삼촌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 짜증을 냈던 3차 독대 모두 자신은 거의 듣기만 했고 무언가를 먼저 이야기하거나 부탁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가 누군지도 몰랐다"며 "금융지주사 전환 등 현안에 대통령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없었고 필요해도 대통령에게 부탁할 생각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당시 독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가 듣는 상황이고 승마협회가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서 대통령께 잘 알겠다고만 했다"며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저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에서 '자신의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공소장에 썼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실제 독대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없다"며 "무슨 대가로 정유라 지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 "합

병 언급 자체도 없었고 대통령이 국민 연금을 동원해 합병 성사를 지원하는 등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듣고 상당히 당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자분께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었다"며 "그래서 회사로 돌아와 제가 당황했었는데 너무 다른 분들(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한테 한번 (표현을)거르고 전달했어야 하는데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박상진 대한승마협회장(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이 알아서 (승마협회)일을 잘 챙겨야 한다 생각해서 박 전 사장에게 '대통령에게 야단 맞게 하느냐. 잘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당시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아) 짜증이 난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그 때만해도 최순실이나 정유라에 대해선 누군지도 몰랐으며 당시 언급된 적도 없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삼성그룹의 스포츠 지원 규모가 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자신의 첫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이 부회장은 이날도 법정 진술에 나선다

고, 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이들을 믿고 맡겼을 뿐, 세세히 챙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스포츠에 1년에 천 몇 백억씩 쓴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쓴다고 문제될까 한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올림픽 승마지원을 해주는 게 어쩌냐. 방법은 알아서 하라고 맡겨졌고 그 뒤로 특별히 챙겨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장님(이건희)이나 저나 그런 일들을 일일이 보고받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라며 "실장님(최지성)이 알아서 챙겨주실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다면 (승마지원을) 좀 더 챙겨줘야 했는데..."라고 후회의 말을 남겼다.

seeit@news1.kr

이철성, 국민과 인권 최고의 가치...인권수호기관 위상 세울 것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에 두고 치안 시스템을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경찰청 소관 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경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역량 집중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지방경찰청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청장은 "경찰에게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과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책무가 부여됐다"며 "인권 친화적 민주 경찰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찰 지휘부가 새롭게 진용을 갖춘 만큼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

과제 추진과 경찰개혁에 전 경찰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경찰개혁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치안활동 전 영역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의 의견이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수사, 단속 등 범 집행에서부터 집회·시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찰활동에 국민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인권수호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행적, 암묵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경찰권의 과도한 행사나 오·남용을 엄밀하게 점검하는 것은 물론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원리와 국민 편의 관점에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안전'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통해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때 전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다"며 여성폭력,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치안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안정된 치안지표와는 달리 국민들은 여전히 생활주변의 각종 범죄와 위험요인들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제 주민이 불안해하는 장소를 돌아보는 탄력순찰과 발길안전지킴이, 주거지 안심동행과 같은 범죄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주민밀착형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국민안전과 사회질서라는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집중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을 때 국민들은 경찰에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줄 것"이라며 "지휘부부터 솔선하고, 현장의 동료들과 하나돼 새로운 경찰상을 확립하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위기, 양극화, 저출산 등의 어려움 속에 국민의 마음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yjra@news1.kr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각 지역 경찰청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출 물리는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한도 줄인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카카오�뱅크가 출범 1주일 만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조인다. 151만 명의 고객이 물리면서 대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고 있다. 대출 속도를 조절해 건전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3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신규 계좌 151만9000건이 개설됐다고 밝혔다. 여신 규모는 4970억원, 수신은 6530억원이다. 예대율은 76%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영업을 시작했다. 시간당 1만명 정도의 고객이 물리고 있다.

자본금 3000억원의 카카오�뱅크는 목표 예대율을 80% 전후로 잡고 있다. 대출하기 간편하고, 금리도 경쟁력이 있다는 입소문에 대출 수요가 쏠렸다. 영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만 지났지만, 여전히 한도 조회부터 지연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한도 1억5000만원에 최저 금리 2.86%인 마이너스통장대출의 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출 상품도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상품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용등급별로 적용하는 한도를 낮춘다"며 "마

통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쓰는 신용대출과 달리 호기심에 받아두고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대출 실행 이전 고객들의 한도 체크가 물리고 있다"며 "빠른 한도 대출 약정 증가와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한도대출에 한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발급 신청 건수는 오전 7시를 기점으로 103만5000건을 돌파했다. 카드 발급 신청비율은 현재 68% 정도다. 캐릭터별로 발급비율을 보면 라이언이 55%로 가장 많았다. 어피치(18%), 무지(12%), 콘(9%) 순이었다.

카카오�뱅크는 폭발적인 고객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담반을 가동하고 있다. 80여명의 상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제2고객센터를 설치하고 장소선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jjy@news1.kr



안철수, 당대표 선거 출마...제 미래보다 당 생존 중요

선당후사의 마음...당 혁신 앞서 제 자신 바꿀 것
'양극화 해결 · 민생 주력' 목표로... '젊은 정당' 제시

(서울=뉴스1) 박응진, 성도현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3일 오는 8·2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7일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몹시 어렵고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며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휩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며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것이 제3당의 몫이고 가치다. 소중한 다당제의 축은 우리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을 향한 정치 품

질경쟁을 통해 제3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고 실패한 제1당은 제2당, 제3당으로 밀려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되고 (정치가) 국민만 바라보고 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새로워져야 이 모든 것의 출발이 가능하다"며 "당을 개혁의 출발점에 세울 혁신의 기수를 찾는 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이고 선당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며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 제 모든 것은 던지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당 혁신에 앞서 제 자신을 바꾸겠다. 절박함으로 무장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당과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함께

하는 정치세력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비전도 밝혔다.

그는 "미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발 딛고 있는 현실의 절박한 문제를 바꾸는데 보다 관심을 두겠다"며 양극화 문제 해결과 민생 주력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 ·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을 모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북핵과 미사일 위기, 부동산 폭등,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같은 문제를 두고는 분명한 역할을 하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혁신과 관련해서는 '젊은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내걸었다. 그는 "신진인사에게 확실히 열려있는 당을 만들고 외연을 넓혀 전국정당으로 우뚝 서겠다"며 "전국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직접 찾아 나서되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대선에서) 꽃을 피우지 못한 실패의 아픔을 강하게 느끼는 그만큼 몸을 던져 당을 먼저 살리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전진하겠다"며 "당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건, 제2창당의 길에 다시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전날까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 이미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전 대표 등을 만나 조언을 들었다.

안 전 대표의 전대 출마로 국민의당 전당대회의 구도와 판세가 새롭게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사들의 당권 도전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어, 이번 출마를 계기로 당이 한동안 내홍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dhspeople@news1.kr

국민의당 경선, 안철수-정동영-천정배 치열한 3파전 불가피

김한길, 당 대표 선거 불출마할 듯
박지원 · 호남 당원 · 대선백서 최대 변수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 오는 27일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 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는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들에 이어 당초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대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문병호 전 최고위원 등이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됐었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나서면서 후보군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안 전 대표의 등판으로 김한길 전 대표의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전략통인 김 전 대표가 승산이 없는 싸움에 나설 리가 없다는 것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다.

안 전 대표의 출마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와 문병호 전 최고위원도 당권도 전에 나서지 않는다. 이 원내수석은 최고위원 선거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반면, 안 전 대표에 앞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정 의원과 천 전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팎에 따르면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는 1강 2중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나아가 당의 얼굴이자 대주

자인 안 전 대표가 큰 어려움 없이 당권을 쥘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물론 변수는 있다. 안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론이 여전한 가운데 출마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

당장 안 전 대표의 출마설이 알려지자 당 소속 의원 12명이 성명서를 내고 안 전 대표 출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호남 표심에도 이목이 모아진다. 국민의당 당원 중 50% 이상이 호남권에 몰려있다. 게다가 정 의원과 천 전 대표 모두 호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관심거리다. 호남권에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박 전 대표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만간 발간될 예정인 대선백서도 전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평가위원회는 대선백서를 전당대회 기간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대선백서에선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안 전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8·27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 전 대표, 정 의원, 천 전 대표 가운데 누가 될 것인지 정치권의 이목이 모아진다.

goodday@news1.kr

안철수 등판에 당내 반발 조짐, 일부 '탈당설'까지

非안철수계 호남 · 비례대표 의원 12명 성명 발표
고문단에 포진한 동교동계 탈당으로 이뤄질지 주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3일 8·27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당내 반발이 커지며 당내 내홍으로 번질 조짐이다.

대선 패배의 장본인이자 증거조작 사건의 정치적 · 도의적 책임을 진 안 전 대표가 당장 전면에서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안 전 대표의 출마 소식이 알려지자 조배숙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은 즉각 출마 반대 성명을 내고 "책임정치 실현과 당의 회생을 위해 안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대에서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와 증거조작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도부를 세우야 한다"며 "안 전 대표의 출마는 정당정치에 있어 책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에 패배하고 신뢰의 위기에 빠져있는 국민의당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재의 유지가 아닌 혁신"이라면서 "대선 패배, 증거 조작에 직간접 관계가 있는 분들은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주승용 · 이찬열 · 유성엽 · 장병완 · 박준영 · 황주홍 · 김종희 · 박주현 · 이상돈 · 장정숙 · 정인화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주로 비(非) 안철수계 호남 · 비례대표 의원들이며, 현재 당권 (예비) 주자인 김한길 전 대표, 천정배 전 공동대표 등과 가까운 의원들로 분류돼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호남의 김경진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안 전 대표는 새로운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개혁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앞선 김철근 지역위원장 등의 안 전 대표 출마 촉구 기자회견에 서명한 지역위원장 수가 109명이라는 점을 놓고 "단순 의견 괴력을 서명으로 둔갑시켜 진실을 호도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안 전 대표에게 서명을 전달했다는 지역위원장 10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서명 확보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고문단에 포진해있는 동교동계(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 그룹) 인사들은 안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한편 안 전 대표 측근 그룹의 조선 의원들 일부도 그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바 있어 전당대회 국면에서 안 전 대표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다.

pej86@news1.kr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Patrick Thomas
617.935.4049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17 Storey Drive, Lincoln, MA 01773
Asking: \$1,529,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 Clara Paik



Just Listed: Condominium
26 Broad Street #101, Marlborough, MA
Asking: \$355,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Rental | BR: 2 BA: 1
31 Arlington Road # 5, Woburn, MA
Rental Price: \$ 1,850/ mo
Listing Agent(s): Vicky Xiao



Just Listed: Rental | BR: 1 BA: 2
273 Commonwealth #3, Boston, MA
Rental Price: \$7,000 / mo
Listing Agent(s): Clara Paik



Just Listed: Rental | BR: 2 BA: 2
295 Salem Street #29, Woburn, MA
Rental Price: \$2,400/ mo
Listing Agent(s): Clara Paik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Al Magurn
508.733.2949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33 Winter Street, Belmont, MA
Asking Price: \$949,000
Listing Agent(s): David Oliveri



Just Listed: Condominium
111 Brigham #1D, Hudson, MA
Asking Price: \$272,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Just Listed: Rental | BR: 1 BA: 1
1666 Mass Ave #36, Boston, MA
Rental Price: \$1,915/mo
Listing Agent(s): Steven Son



Just Listed: Rental | BR: 2 BA: 1
41 Payson Road #1, Belmont, MA
Rental Price: \$2,700/ mo
Listing Agent(s): Steven Son



Just Listed: Rental | BR: 2 BA: 1
216 Rindge Ave #4, Cambridge, MA
Rental Price: \$2,400/ mo
Listing Agent(s): Ping Bai



Just Listed: Rental | BR: 1 BA: 1
100 Station Landing #1005, Medford, MA
Rental Price: \$2,350/ mo
Listing Agent(s): Steven Son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Tianna Johnson-King
336.392.7838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패트리어츠가 잃어서는 안 될 선수들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이번 주에 40세가 된 탐 브래디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상징 같은 존재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NFL 최고의 선수이다. 그렇다면 브래디를 제외하고 패트리어츠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

NBC에서는 현재 NFL에서 활동 중인 스카우터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해, 브래디를 제외한 패트리어츠가 잃어서는 안 될 선수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현재에서 풋볼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되었다.

스카우터1: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래디가 부상을 당하더라도 패트리어츠는 지미 거라폴로를 스타팅 쿼터백으로 앞세워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줄리언 에들먼이다. 에들먼은 작은 엔진으로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선수다. 에들먼은 좋은 슬롯 리시버가 어떻게 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에들먼은 캐치 이후에 달리기나 그리 빠른 편은 아니다. 그러나 풋볼에 대한 감각이 브래디만큼 좋다. 경기를 읽는 방식이 브래디와는 다르지만 에들먼은 수비수가 어디에 있는 빠르게 파

악하고 이를 이용해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느낀다.

에들먼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다. 지난 수퍼볼에서 모두가 봤듯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풋볼을 잡아냈다. 나라면 언제나 에들먼을 내 편에 둘 것이다.

스카우터2: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다. 단테 하이타워가 꼭 필요한 선수이고, 내 생각에 빌 벨리치 감독도 같은 생각인 것 같다. 크고 작은 부상과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어츠가 거액을 주고 하이타워와 재계약을 맺은 이유다.

하이타워는 괴물 같은 선수다. 라인배커 포지션이지만 디펜시브 라인의 중앙에서 끝까지 어느 곳에서나 활약할 수 있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몸놀림도 빠르다. 힘과 순발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의 공격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하이타워를 막으려면 오픈시브 라인맨 두 명이 필요하다. 각도에 따라서 650 파운드에 달하는 두 명의 선수가 붙어도 하이타워에게 밀린다. 대단한 선수다.

스카우터3:

타이트엔드 랍 그롱코스키다. 그롱코스키가 일요일에 경기장에서 보여주



랍 그롱코스키는 경기장 어디에 세워놓더라도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선수다

는 모습은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롱코스키는 블락킹 능력도 뛰어나지만 패스를 받을 경우 수비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선수다. 아마도 브래디가 제일 선호하는 타겟은 에들먼일 것이다. 그러나 그롱코스키는 더 좋은 타겟이다. 그롱코스키는 경기장 어디에 세워놓더라도 경기에서 이길 것

이다. 에들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스카우터4:

나는 트레이 플라워스를 말하고 싶다. 플라워스와 하이타워, 두 선수만이 지속적으로 쿼터백을 괴롭힐 수 있다.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하이타워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도 드래프트에서 우리 팀은

플라워스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플라워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패트리어츠가 선택하도록 남겨 두었다.

플라워스의 경기를 보면 시선이 가게 된다. 특히 손놀림이 정말 빠르다.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선수다.

jsi@bostonkorea.com

추신수, 2G 연속 멀티히트...김현수 4타수 무안타 침묵

(서울=뉴스1) 정명익, 이재상, 맹선호 기자 = '추추 트레인' 추신수(35)가 이틀 연속 멀티히트를 터트리며 팀의 연패 탈출에 앞장섰다.

'코리안몬스터' 류현진(30·LA 다저스)은 오는 7일 뉴욕 메츠전 선발 등판이 확정됐다.

김현수(29·필라델피아 필리스)는 5번타자로 선발 출전했지만 침묵했고,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은 결장했다.

추신수는 2일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 경기에서 2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추신수는 전날 3안타를 몰아친 데 이어 이날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쾌조의 타격감을 이어갔다. 타율은 종전 0.255에서 0.258로 소폭 상승했다.

1회말 첫 타석, 추신수는 딜라이노 드윌즈의 리드오프 홈런으로 1-1 동점이 된 상황에서 우전안타를 치고 나갔다. 그러나 후속타자의 병살타 때 벤치로 되돌아왔다.

추신수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출루에 성공했다. 4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또 다시 우전안타로 출루했다. 그리고 엘비스 앤드루스의 2루타와 아드리안 벨트레의 희생플라이 때 득점을 올리며 2-1 역전을 견인했다.

3-1로 앞선 6회말에는 2루수 땅볼을 쳤지만

상대 실책이 나오며 1루를 밟았다. 그러자 앤드루스가 중월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5-1을 만들었다. 추신수는 이날 경기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8회말 마지막 타석에서 내야 땅볼로 아웃됐고, 텍사스는 5-1 승리로 경기를 끝냈다.

4연패 부진에서 탈출한 텍사스는 51승56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4위를 마크했다. 반대로 시애틀은 4연승의 상승세가 꺾였다. 하지만 55승54패로 같은 지구 2위를 유지했다.

김현수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전에 5번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종전 0.233에서 0.226으로 하락했다.

필라델피아로 팀을 옮긴 뒤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김현수다. 1일 첫 경기 7번타자, 2일 경기 8번타자에 이어 이날은 처음으로 중심타선인 5번에 배치됐지만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필라델피아는 에인절스에게 0-7 완패를 당하며 39승66패를 기록,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에인절스는 53승55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3위를 지켰다.

오승환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 파크

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 등판하지 않았다.

세인트루이스가 5-4 진땀승을 거둔 가운데 오승환이 아닌 트레버 로젠탈이 뒷문을 단속했다.

오승환은 최근 6경기 연속 비자책 상승세지만 이날은 휴식을 취했다. 오승환의 시즌 성적은 1승5패 18세이브 평균자책점 3.64.

밀워키 2번 1루수로 나온 에릭 테임즈는 이날 시즌 25호 홈런을 포함해 5타수 1안타(1홈런) 1타점을 기록했다.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35)

세인트루이스는 53승54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를 유지했다. 밀워키는 56승53패로 같은 지구 2위를 지켰다. 두 팀의 승차는 2경기로 좁혀졌다.

황재균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열린 오클랜드전에 결장했다.

샌프란시스코는 1-6으로 완패, 41승68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꼴찌 오클랜드는 48승60패가 됐다.

doctorj@news1.kr



필라델피아 필리스 외야수 김현수(29)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LISTINGS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ASKING \$359,000



Single Family in Quincy, Guest House에 적합한 4 B/R, 2 1/2 Bath
ASKING \$640,000

SOLD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Drop shop in Newton
ASKING \$70,000



Nail salon in Dedham
ASKING \$35,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TEL. 617.467.5218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 Dabluay Parish of Boston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쁨의 터니라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2: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아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수) 7:30	LIFE 모임/주일 4:00

담임 목사 / 우치창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담당목사: 박일종 목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간판 및 사인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결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2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바른 의료
앞선 의술
바른 진료

세란병원
SARAN GENERAL HOSPITAL

세란병원 제휴 런칭기념 종합검진 특별가

- 기간 : 2017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해당 기간내 검진 시행자)
- 대상 : 휴람을 통한 예약 진행 해외거주자에 한함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검진 기관 평가 S등급 병원(최고 등급)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세란병원은 의료관광 휴람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동포분들께 최고의 시설에서 편리한 검진을 해외동포 특별가로 제공합니다!

- ◆ 1,200여평 규모의 미래형 스마트 검진센터!
- ◆ 병실이 아닌 호텔급의 특급 객실 셋팅으로 편안한 숙박 제공!
- ◆ 최신 스마트 검진 시스템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해진 원스탑 검진과 2차 진료 연계!
- ◆ 검진과 스파, 미용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편안한 검진과 피로 회복 및 성형 뷰티 관리까지!
- ◆ 일산, 파주, 고양, 서서울 지역에 체류하는 해외 동포분들의 편리한 접근성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앞 1분거리)

[종합검진 기본 항목]

기본진료(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안과(안저, 안압), 폐기능, 체성분, 심전도, 흉부촬영, 위장검사(수면내시경), 종양표지자(간, 전립선, 난소암), 상복부초음파(간장, 신장, 담낭, 비장, 췌장), 부인과(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당뇨(혈당, 당화혈색소), 신장기능, 간기능, 고지혈증, 심혈관기능, 동맥관찰, 혈관질환질환, 전해질, 영양기능, 갑상선기능,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에이즈, 일반혈액, 소변검사, 구강검사



휴람 당일 종합검진

★ 당일 08:30 ~ 12:30(오전 4시간) / 즉 제공

남성 50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 CT 선택검사 1 (뇌CT, 폐CT, 경추CT, 요추CT, 복부 지방CT 중 택1 검사),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여성 50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 CT 선택검사 1 (뇌CT, 폐CT, 경추CT, 요추CT, 복부 지방CT 중 택1 검사), 갑상선초음파, 자궁경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49만원
남·여 동일가

휴람 숙박 종합검진

★ 숙박일 14:00 ~ 익일 13:00(1박2일) / 즉 제공 / 입원 물품 세트 제공

남성 80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대장 수면내시경, 동맥경화 협착 검사, A형간염검사, CT 선택검사 1 또는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여성 80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대장 수면내시경, 동맥경화 협착 검사, A형간염검사, CT 선택검사 1 또는 초음파 검사 택1 (유방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중 1),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69만원
남·여 동일가

휴람 정밀 숙박 종합검진

★ 숙박일 14:00 ~ 익일 13:00(1박2일) / 즉 제공 / 입원 물품 세트 제공

남성 150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뇌 MRI, 뇌 MRA, CT 선택검사 1 (뇌CT, 폐CT, 경추CT, 요추CT, 복부지방CT 중 택1 검사), 대장 수면내시경,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동맥경화 협착검사, 스트레스검사, 중앙표지자검사(위암, 대장암, 혈액표지자), A형간염검사

여성 150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뇌 MRI, 뇌 MRA, CT 선택검사 1 (뇌CT, 폐CT, 경추CT, 요추CT, 복부지방CT 중 택1 검사), 초음파 선택검사 1 (유방초음파 또는 경동맥초음파중 택1), 대장 수면내시경, 갑상선초음파, 자궁경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동맥경화 협착검사, 스트레스검사, A형간염검사, 중앙표지자검사(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혈액표지자)

125만원
남·여 동일가

휴람 VIP 숙박 종합검진

★ 숙박일 14:00 ~ 익일 13:00(1박2일) / 즉 제공 / 입원 물품 세트 제공

남성 300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부티성형 선택검사 1(화이트닝레이저, CO2레이저, 보톡스2부위 중 택1), 메디칼 테라피(60분), 영양제 투약상담후 본인에 맞는 영양제, MR 선택검사 2 (뇌MRI, 뇌MRA, 요추MRI, 경추MRI 중 택2), CT 선택검사 2 (뇌, 폐, 경추, 요추, 복부지방, 부비동, 갑상선CT 중 택2), 모발증진속검사, 남성호르몬검사, DNA 유전자 10종검사, 심장초음파, 뇌혈류검사, 호르몬스테인검사, 대장 수면내시경,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동맥경화 협착검사, 스트레스검사, 중앙표지자검사(위암, 대장암, 혈액표지자), A형간염검사

여성 300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부티성형 선택검사 1(화이트닝레이저, CO2레이저, 보톡스2부위 중 택1), 메디칼 테라피(60분), 영양제 투약상담후 본인에 맞는 영양제, MR 선택검사 2 (뇌MRI, 뇌MRA, 요추MRI, 경추MRI 중 택2), CT 선택검사 2 (뇌, 폐, 경추, 요추, 복부지방, 부비동, 갑상선CT 중 택2), 모발증진속검사, 여성호르몬검사, DNA 유전자 10종검사, 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뇌혈류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PV)검사, 호르몬스테인검사, 대장 수면내시경, 갑상선초음파, 자궁경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동맥경화 협착검사, 스트레스검사, A형간염검사, 중앙표지자검사(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혈액표지자)

244만원
남·여 동일가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Chelmsford, MA 세탁소
운전해 주실 분 (1PM - 6PM, 월 - 토)
T. 603-401-0113

Weston MA 세탁소
수, 목, 토 하루 3시간만 카운터 구함.
(시간 조정 가능) T. 603-401-0113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True World Foods

스시 레스토랑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풀타임 영업직원 구함.

한국어와 영어 모두 가능.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 사무실 업무에도 능숙.
식당업 또는 식품도매업에 익숙.
월 \$3,500 기타 혜택 제공 가능.

이력서 보낼 곳:
david-st@trueworldfoods.com

도우미 구함

FirstLight HomeCare of West
Suburban Boston

한국인 노인분 대상 일상생활 도우미
파트타임 일하실 분 구함

영어 가능.
CNA / HHA 소유자 선호.

T.(Wendy) 781-559-0220

Tailor & Alteration Shop for Sale

- 37-Year Old Business in Marblehead, MA
- Owner Retiring
- Call Mr. Son at 781-985-0222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어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소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NH)	603-898-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신문연합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연합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 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 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한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탈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아카데미(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빌그린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메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 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781-326-9009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43
우스터 교회	508-799-440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위임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캔시영성장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장영구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샬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발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타겟이 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샬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앤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광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다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엑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실험치	978-263-4592
기타	
메모리알병원(병리)	203-330-8080
문하영림 보청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치초신한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부동산

무더위에 더욱 위험한 뇌졸중, 50대 남성 특히 조심해야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뇌졸중은 여름에도 위험적, 고혈압·당뇨 등 위험요인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단일 질환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뇌졸중. 흔히 겨울철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름에도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뇌졸중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무더위에는 체내 수분이 감소하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해지고 순환도 잘 안 되는데, 이때 혈압이 상승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 또 실내외 온도차가 크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어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과거 본인은 물론 부모님이 뇌졸중을 겪은 적이 있거나 고혈압, 심장병, 당뇨, 고지혈증, 뇌동맥류 등과 같은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특히 뇌졸중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50대 남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신경과 강석재 과장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피가 뇌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하고 되살릴 수 없다"라며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후유증도 무섭기 때문에 뇌졸중 고위험군이라면 원인 질환을 보다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병 앓고 있다면 고위험군, 50대 남성도 주의 필요

뇌졸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고혈압이다. 뇌경색 환자의 50% 이상, 뇌출혈 환자의 70~88%는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더위에는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올 수 있는데, 고혈압인 경우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관의 흐름을 방해해 혈압이 상승,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뇌졸중 환자의 75%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병을 동반한다. 심장 내 피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부분적으로 정체되면 혈전이 발생하는데,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2배 정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50대 남성은 이런 위험요소와 상관없이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그동안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으로 수년간 뇌혈관에 크고 작은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졸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대다. 실제로 2014년 전국 143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뇌졸중 응급환자 현황을 보면 50대 남성은 11,045명으로, 50대 여성 5,516명과 40대 남성 5,313명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다면 즉시 병원에 갈 것을 권고한다. ▲편측 마비-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무뎌짐 ▲언어장애-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못하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음 ▲시각장애-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두 개로 겹쳐 보임 ▲어지럼증-술 취한 것처럼 비틀대고 손놀림이 부자연스러움 ▲심한 두통-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은 두통, 토할 것 같이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증상.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 골든타임 1시간 이내 응급실에 도착해야

여름철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뇌졸중 발생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조기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뇌세포는 단 몇 분만 혈액공급이 안돼도 손상을 입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다. 가령 뇌경색의 경우 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 이내에 정맥을 통해 혈전 용해제를 주사해야 뇌혈관에 다시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현재 상태가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를 빨리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사망을 막고 후유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보통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3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빠른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한다. 병원에 도착해도 진단과 검사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그런데 막상 본인 또는 주변에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해서 시간을 지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때문에 뇌졸중 우려가 있는 위험군이라면 신속하게 뇌졸중 치료를 할 수 있는 집 또는 직장 근처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미리 파악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강석재 과장은 "응급실을 찾는 정도의 조기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 과로나 수면부족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고, 최근 허가 굳어지고 현기증이 생긴 적이 있는 경우, 또 손발이 저리고 눈앞이 침침한 적이 있었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라며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전산화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혈관조영술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휴람 해외의료사업팀의 김수남 팀장은 "한국을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휴람을 통해 꼭 건강검진을 받아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턴코리아 전화 617-955-91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원기념 스페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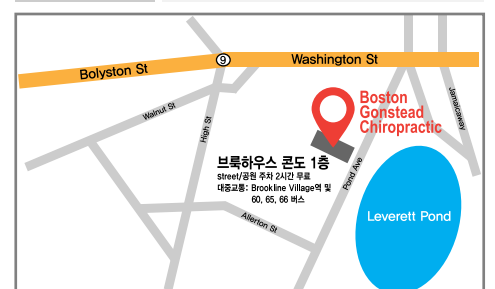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2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보스턴 건스테드 카이로프랙틱

Tel. 617.277.0648

77 Pond Ave, Suite 101, Brookline, MA 02445
Email: bostongonstead@gmail.com
Web: www.bostongonstead.com



흥행vs논란, '군함도'가 쓴 극과 극 新기록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영화 '군함도' (류승완 감독)가 8일째 5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애초 '천만' 기대작이었기에 500만 돌파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지만, 개봉 초기부터 여러 논란으로 몸살을 겪은 터라 500만의 의미가 남다르다.

2일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군함도'는 개봉 8일째인 이날 오전 9시 30분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올해 최단 기간 500만 돌파 기록이다. 또 한번의 신기록을 쓴 셈. 개봉 첫날 97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한국 영화 오프닝 최고 기록을 경신한 이 영화는 2일째 100만, 3일째 200만, 4일째 300만, 5일째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천만 영화'의 수순을 밟아왔다.

아쉽게도 '군함도'의 이 같은 성적이 시원치만 않은 것은 개봉 첫날부터 논란이 됐던 '독과점' 이슈 때문이다. '군함도'는 개봉 첫날부터 약 2000여 개 스크린에서 개봉해 '역대 최고 예매 관객수'를 기록했고,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었다. 특히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인 CGV와 '군함도'의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가 같은 CJ그룹 계열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는 더 거셌다.

'군함도'를 괴롭힌 것은 독과점 논란만이 아니었다. 생각지도 못한 '역사 왜곡' 문제도 터졌다. 영화를 본 일부 관객들이 영화 속 갈등 구조가 '조선인vs일본인'이 아닌 '조선인vs친일파'로 나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면서, 영화가 '식민사관'에 근거해 만들어졌거나 '일본인을 옹호한다'는 식의 주장도 나왔다.

영화를 본 관객들의 입장이 반으로 갈리면서 각계각층에서 영화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독과점에 대한 날선 비판도 있고, 영화 속 고증에 대해 호평하는 역사 전문가도 있었다.

주로 저예산 영화를 만들어 온 민병훈 감독은 '군함도'의 개봉일 자신의 SNS에 "제대로 미쳤다. 2168. 독과점을 넘어 이진 광기다. 신기록을 넘어 기네스에 올라야 한다. 상상은 기대도 안 한다. 다만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군함도'에 대해 독과점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군함도'에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이 묘사된 것에 대해 "사실을 반영한 기록 영화 같은 것이 아니다.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함도'가 불리한 소재를 영화화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 나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영화는 감독이 밝힌 바와 같이

실제 역사적 사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함도에서 과거 수많은 한국인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류승완 감독은 며칠 후 "영화 '군함도'는 '실제 있었던 역사를 모티브로 해 만들어진 창작물'이라고 제가 얘기한 바 있지만, 일본은 저의 이 발언 중 '실제 역사를 모티브로 했다'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창작물'이라는 워딩만 왜곡하여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냈다. 또 그는 지난 1일 인터뷰에서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독과점'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군함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도 있었다. 역사 전문가인 심용환은 자신의 SNS에 '군함도'에 대해 "'역사 왜곡' 글썽요.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영화 초반부에 나온 강제징용의 실상은 우리 영화 역사에서 처음, 그리고 비교적 잘 묘사가 되었다"고 평했다. 이어 "내가 끝내 글을 안 쓰려다가 쓰게 된 이유는 명확하다. 이상한 애국주의에 빠져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광장히 경직화된 사고를 하려고 한다는 거다.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다. 재미 없으면 재미 없다고 말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우 도덕적이고 고증적인 측면으로 비판을 하면서 뻔대는 희한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현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류승완 감독의 공식 입장과 고증에 대한 비호에도 여전히 '군함도'를 괴롭히는 두 가지 문제, '독과점'과 '역사왜곡' 이슈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류 감독은 방송 및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독과점 문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역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해명했지만 일부 관객들의 날선 반응은 그대로다. 이쯤되면 한국 영화 '흥행 신기록'이 아닌 '논란 신기록'이라고 일컬어도 될 정도다.

예민한 소재로 인해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군함도'의 흥행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군함도'를 통해 일본과의 청산되지 않은 문제들, 위안부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 번 크게 공론화되고 있는 점이다. 독과점 문제에는 아쉬움이 있고, 영화의 역사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 측면의 논의가 필요한 게 사실이나 이 영화가 한국 영화사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의미있는 지점을 차지할 것임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eujenej@news1.kr

'명불허전' 시너지...김남길X김아중 사극킹·장르퀸의 귀환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김남길과 김아중이 '명불허전' 케미스트리로 안방극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김남길은 그간 드라마 '선덕여왕'과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 등 사극에서, 김아중은 드라마 '싸인' '펀치' '원티드' 등에서 장르퀸으로 각각 두각을 드러냈다. 그런 이들 배우가 '명불허전'에서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명불허전'은 침을 든 조선 최고의 한의사 허임(김남길 분)과 메스를 든 현대 의학 신봉자 외과의 연경(김아중 분)이 400년을 뛰어넘어 펼치는 조선 왕복 메디컬극이다. 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과 '디어 마이 프렌즈'를 연출한 홍종찬 PD가 연출을 맡았고 '여왕의教室'의 김은희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홍종찬 PD는 이번 드라마의 차별점에 대해 허임이라는 실존인물과 타임슬립이라는 장르의 교배라고 밝혔다. 그는 "종합선물세트처럼 메디컬에 한의학에 코미디에 타임슬립에 성장이야기까지 다 들어있다"며 "대본을 처음 봤을 때 허임이 실존 인물인데도 잘 모르겠더라. 허준이 아닌 이런 인물이 있었나 싶었다. 이 인물이 400년 후 현대에 온다면 어떻게 될지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런 그가 만나게 되는 인물들을 통해 에피소드가 그려지며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게 된다. 침술 보다 이 사람을 왜 살리려는지 감정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불허전'은 오는 12일 밤 9시 처음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조정석X헤리X최우식, MBC '투깝스' 남녀 주인공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조정석과 헤리, 최우식이 한 작품에서 만날 전망이다.

1일 복수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석은 최근 MBC 새 월화드라마 '투깝스' 출연을 확정지었다.

'투깝스'는 뺑질이 사기꾼 형사의 영혼이 들어온 정의로운 강력계 형사와 까칠한 여기자가 펼치는 판타지 수사 로맨스 드라마로, 변산준 작가의 임봉작이다. 일찌감치 출연을 확정지은 조정석은 극 중 뺑속까지 강력계 형사인 영등포서 강력2반 형사 차동탁 역을 맡아 연기한다.

조정석과 호흡을 맞출 또 다른 남녀 주인공으로는 걸그룹 걸스데이 헤리와 배우 최우식

이 출연을 제안받았다. 헤리가 현재 논의 중인 역할은 불의를 보면 광분하는 까칠함과 추진력, 그리고 뻔뻔함을 갖춘 미모의 방송사 사회부 기자 송지안 역이다.

특히 '투깝스'는 최근 방송 내내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로 종영한 MBC 드라마 '군주-가면의 주인'을 성공적으로 이끈 제작사 피플스 토리 컴퍼니가 제작을 맡는다. 연출은 MBC 드라마 '개과천선'과 '역도요정 김복주'의 오현종 PD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깝스'는 오는 9월 방송되는 새 월화드라마 '20세기 소년소녀' 후속으로 오는 11월 방송될 예정이다.

aluem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7월 24일 ~ 2017년 7월 30일

Nielsen Media TV 자사와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9.5%
2	KBS1	일일연속극(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20.4%
3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19.2%
4	KBS1	KBS9시뉴스	15.1%
5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14.8%
6	SBS	미운우리새끼다시쓰는육아일기	13.7%
7	KBS1	전국노래자랑	13.1%
8	SBS	정글의법칙INKOMODO	13.0%
9	SBS	특별기획(언니는살아있다)	12.7%
10	KBS1	가요무대	11.8%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	KBS1	일일연속극(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3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4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5	SBS	특별기획(언니는살아있다)
6	MBC	주말특별기획(도둑놈도둑님)
7	MBC	아침드라마(훈장 오순남)
8	SBS	아침연속극(달콤한 원수)
9	KBS2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10	MBC	수목드라마(죽어야 사는 남자)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비도 오고 그래서 (Feat. 신용재)	헤이즈 (Heize)
02	빨간 맛 (Red Flavor)	Red Velvet
03	Artist	지코 (ZICO)
04	널 너무 모르고	헤이즈 (Heize)
05	마지막처럼	BLACKPINK
06	Ko Ko Bop	EXO
07	남이 될 수 있을까	볼빨간사춘기
08	나로 말할 것 같으면 (Yes I am)	마마무
09	매일 듣는 노래 (A Daily Song)	황치열
10	FIVE	Apink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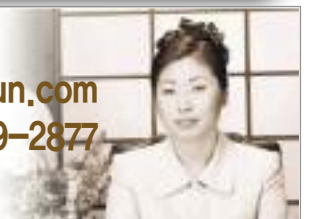
9					6			
		3			5			
8	5	6		2		1		
	1		5	6			9	
5								6
	7			9	1		3	
		7		5		4	8	9
			4			3		
			3					5

8월 6일 - 8월 12일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운수: 항상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감정에 빠져있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금전: 아이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흡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애정: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별 애기도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화나게 하는 말을 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6, 9일 길일. 8, 11일 주의.

소띠 | 내실을 기해야

●운수: 내 자식이라도 나와 같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기억하고 자신처럼 생각하고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 먼저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는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애정: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감정싸움에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6, 10일 길일. 9, 12일 주의.

범띠 | 꼼꼼히 확인해야

●운수: 위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힘들더라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전: 손해를 보거나 후회하게 되는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세요.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9, 11일 길일. 6, 10일 주의.

토끼띠 |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운수: 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극복해나가야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처럼 됩니다. 과거에 베풀거나 쌓았던 덕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9, 12일 길일. 10, 11일 주의.

용띠 | 물이 고여 있으면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변화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금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돈을 돌고도는 것이니 불잡고 있으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정: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7, 9일 길일. 6, 10일 주의.

뱀띠 | 새록새록 피어나는

●운수: 다시없을 인생의 기회와 여길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회가 왔을 때에 꼭 잡아야 하겠습니다. ●금전: 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애정: 애정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6, 11일 길일. 7, 10일 주의.

말띠 | 만족할만한 결과가

●운수: 여러 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도 이제는 훌훌 털어내고 벗어납니다. ●금전: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베풀었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소중한 인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본 순간 느낌으로 알 수 있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7, 12일 길일. 6, 8일 주의.

양띠 | 막상 코앞에 닥치면

●운수: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처음은 되지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해놓고 또 막상 코앞에 닥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따지고 거리게 됩니다. ●금전: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자신의 손안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애정: 힘들다고 하면서도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1일 길일. 6, 10일 주의.

원숭이띠 |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운수: 신체 에너지가 상승하니 의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특히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부동산 매매가 되거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가까이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애정: 모처럼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

닭띠 |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수: 너무 완벽을 기하다보면 일의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넘어가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이니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애정: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가까이에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6, 9일 길일. 7, 8일 주의.

개띠 |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운수: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수입은 무난한 편입니다. 금쪽같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판단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의심만 가지고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11일 길일. 6, 12일 주의.

돼지띠 | 신나서 일하게

●운수: 운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연결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바쁘고 힘들어도 신나서 일하게 됩니다. ●금전: 나갔던 돈이나 잃어버렸던 돈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도 생깁니다. ●애정: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가슴속에 감춰두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면 잘 전해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

'삼시세끼 바다목장 편' 나영석 PD "한지민, 이서진 · 에릭과 친해...분명 천사"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나 PD는 2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tvN '삼시세끼 바다목장 편'(이하 삼시세끼) 기자간담회에서 "한지민 씨는 이서진과 '이산'이라는 작품 굉장히 오래 했었다. 에릭씨와도 두 작품 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계에서 두 사람과 동시에 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여자 연예인인데, 그래서 한지민 씨는 분명 천사 같은 분이 확실하다. 그래서 촬영 분위기가 좋았다"고 웃었다.

또 그는 "격 없이 너무 재미있게 2박3일 동안 농담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지내다 가셨다"면서 "이번 여름에는 한지민씨처럼 한 분씩 게스트를 모셔볼 생각이다. 해보니까 손님 오시는 걸 좋아하신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누가 오면 좋아하신다. 이번에는 일도 있지만 여름을 즐기면서 나는 법을 보여주려 한다. MT처럼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시세끼 바다목장 편'은 여



름 득량도를 배경으로 목장을 운영하며 세끼를 해결하는 모습을 훈훈하게 그리는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배우 이서진과 신화 에릭,

배우 윤균상이 출연한다. 오는 8월4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9시50분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한끼줍쇼' 이효리 화려한 연변으로 한 끼 도전 성공

(서울=뉴스1스타) 김주윤 기자 = 이효리가 먼저 한 끼 도전을 성공했다.

2일 방송한 JTBC 예능 프로그램 '한끼줍쇼'에 이효리와 슈가 출연해 김포 신도시에서 한 끼 도전에 나섰다.

이경규와 이효리, 강호동과 슈가 한 팀으로 본격적인 한 끼 도전을 시작했다.

이효리가 먼저 초인종을 눌렀다. "난 한번에 성공할텐데"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집에 사람이 없어 실패했다. 이어 슈가 도전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재도전을 한 이효리는 아직 식사 전인 주거인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부탁했다. 주거인은 음식이 마땅치 않지만 괜찮으시면 함께하자고 했다.

europa@news1.kr

'라디오스타' 강하늘 "입대 앞두고 설렌다" 헌병대 지원

(서울=뉴스1스타) 장수민 기자 = 입대를 앞둔 배우 강하늘이 '라디오스타'에서 심경을 전했다. 2일 오후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핫 브라더스! 라스를 부탁해!' 특집으로 배우 강하늘, 동하, 버즈민경훈, 씨엔블루 정용화가 게스트

로 참여했다. 또한, 가수 솔비가 아홉 번째 스페셜 MC로 김국진, 윤종신, 김구라와 호흡을 맞췄다.

이날 MC들은 강하늘에게 입대 심경을 물었고, 이에 강하늘은 "설렌다"라고 답했다. 이에 MC김구라는 '미담 자판기' 강하늘에게 "이것도

미담이다. 설렌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놀라워했다.

또한, 강하늘은 "헌병대 전문특기병으로 지원했다"라며 오는 9월11일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jjm928@news1.kr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7월 3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아버지가 이상해
2	KB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	KBS	이름 없는 여자
4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5	SBS	언니는 살아있다
6	MBC	도둑놈 도둑님
7	MBC	훈장 오순남
8	SBS	달콤한 원수
9	KBS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10	MBC	죽어야 사는 남자

티보플레이 7월 3째주 신규 방송

1	MBC	죽어야 사는 남자
2	SBS	다시 만난 세계
3	MBC	왕은 사랑한다
4	SBS	파티피플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1	미정	
---	----	--

'무궁화' 도지한-이창욱, 싱글맘 임수향에 사랑고백



(서울=뉴스1스타) 윤정미 기자 = 도지한과 이창욱이 임수향을 향한 사랑의 몸살을 앓으며 삼각관계가 더욱 깊어졌다.

24일 KBS1 일일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선 태진(도지한)이 궁화(임수향)에게 애정을 고백하며 그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날 궁화는 거듭 마음을 고백하는 태진에게 "나 팀장님 좋아하는 거 맞다. 그런데 저랑 결혼이라도 하려고 그러느냐"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연애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 우리의 엄마 거든요"라며 자신에게 딸이 있음을 강조했다.

태진은 "넌 내 마음이 장난 같아? 너랑 장난치고 싶은 생각 없어"라고 말했다. 그 역시 궁화가 결혼을 했었고 아이까지 있던 사실을 알고 놀랐지만 자제해도 그녀를 향한 마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 그는 "근데 네가 이겼어. 그런 고민도 없이 너한테 감정 드러냈을 거라 생각한 거냐"며 그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거듭 드러냈다.

진도현(이창욱) 역시 무궁화를 향해 포기 없는 대시를 하며 그녀를 힘들게 했다. 그녀는 파출소로 찾아오는 진도현에게 "거기는 내 신성한 일터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내가 진도현씨를 지긋지긋해하길 바라나. 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남아있어라"고 말했다.

galaxy98@news1.kr

'왕은 사랑한다' 초스피드 전개 위기의 임시완♥임윤아

(서울=뉴스1스타) 장수민 기자 = '왕은 사랑한다'가 긴박한 전개로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왕은 사랑한다'에서는 총렬왕(정보석)이 사냥터로 나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총렬왕은 자신을 모함하는 세력의 계략으로 홀로 길을 잃고 헤맸고, 아들 왕원은 이런 총렬왕을 찾았다. 왕의 책사인 송인(오민석 분)의 계략에 따라 부하 무석(박영운 분)은 사냥터에 몰래 숨어 있다가 일부러 총렬왕에게 스치듯 화살을 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연습한 대로 총렬왕에게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마침 왕원이 총렬왕 쪽으로 오게 됐고, 총렬왕은 자신에게 오는 왕원을 보고 분노하며 "아비인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며 오해하면서 분노했다. 이는 다 송인의 계략이었다.

breeze52@news1.kr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9.99**
7.31.2017까지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19.99**
7.31.2017까지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29.99**
7.31.2017까지

*전상품 무약정

8월 한달 프로모션
\$9.99
~~\$14.99~~
KBS MBC SBS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STORY ON OnStyle Mnet O'live OCN





따라

8월 한달 프로모션

\$9⁹⁹

~~\$14.99~~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9⁹⁹

7.31.2017까지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19⁹⁹

7.31.2017까지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29⁹⁹

7.31.2017까지

*전상품 무약정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
617-955-9112**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신영의 세상 스케치

607회

흙내 가득한 텃밭에서...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른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부엌 창문을 여는 버릇이 생겼다. 계절마다 만나는 자연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탓일까. 때로는 즐거워 깔깔거리다 행복에 겨워 눈물이 고인다. "아, 이 한 여자로 말미암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 얼마나 행복하고 때로는 얼마나 힘겨웠을까." 문득 곁에 함께 있는 짝꿍(남편)과 세 아이가 고맙다.

난생처음 텃밭에 오이를 키우니 혼자 행복에 겨워 출렁거리며 혼자 누리기엔 아까워 남편을 불러 텃밭을 구경시켜 준다.

"자기야, 어제 오이를 다섯 개나 땀는데..."

"저기 봐, 오이가 또 저렇게 컸잖아!"

때로는 쥐도 못 갖는 사람이 있다. 철마다 만나는 자연은 우리에게 주신(神)의 선물이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탓일 뿐. 어제는 이른 아침 텃밭에 나가 흙내를 가득 들이마시며 행복에 겨워 들어올 줄도 모르고 풀을 뽑기 시작했다. 상추뿌리 곁에 있는 풀도 뽑고 들깨 나무 옆에 있는 풀도 웬스(Fence) 가까이 오이를 심어 놓았기에 그 녀석들은 저절로 웬스를 타고 하늘을 향해 오르는 모습

은 참으로 예쁘다.

"아,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다"

생명은 하늘과 땅을 이어 호흡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시간이 어찌 이리도 감사한지 그만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다 눈물이 고이고 만다.

요즘은 'کم'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져 꽃밭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몇 년을 살고 있었다. 현대 물질문명이 주는 편리함과 잃어버리는 평안함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다. 자연과 사람이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호흡하며 살아야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다. 잘라내고, 밀어내고, 깎아내고, 부숴버리고 난 후의 모습은 앙상하고 삭막하고 슬픈 모습이다. 서로 상처주고 상처 받고 남은 것은 상흔 조각들뿐.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나무같은 우리. 가끔 나무를 만나면 사람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텃밭에서 만나는 요즘의 감사는 내게 충만한 기쁨이다. 세상의 욕심과 미움이 절로 놓이는 '텅 빈 충만'이다. 흙은 우리에게 깊은 명상의 시간을 마련해 준다. 땅에 가까이 앉아 있으면 흙내가 절로 내 온몸을 둘

고 깊은 호흡은 마음의 평화를 주기에 미소는 절로 나온다.

"내가 기쁘니 남도 기쁘다" 라는 말이 절로 실감 난다. 내 마음이 편안하니 남편과 아이들에게 기쁨을 나눈다. 시간을 좇다 보면 내 시간이 여의치 않아 허덕인다. 시간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24시간의 하루는 어떤 의미일까. '얼마만큼의 차이를 만들까'하고 생각에 머물기도 한다.

그렇다, 모두가 시간의 길이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누린 것만큼의 길이와 분량과 부피이다.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고통이든, 행복이든 간에 말이다. '생활 명상'은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를 일깨워 준다. 매일의 삶을 살면서 어찌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있을까. 그저 내게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일일 뿐.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나 자신이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이겨내는 일일 뿐. 어려운 고통도 지나면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남는다.

나무가 자라려면 가지마다 마디를 남기듯 겨울의 흑한과 여름 피약별의 마른 시간을 기다린 생명. 그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

쁨과 환희가 바로 지혜이다. 땅을 딛고 걷다가 문득 밭에 닿아 밟히는 돌맹이의 감촉 그리고 소리 없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깨우는 일. 햇살에 겨워 반짝이는 은빛 물결의 이파리는 행복이다. 이처럼 자연은 내게 큰 기쁨과 행복을 선물한다. 텃밭에서 만나 나누는 마음의 대화는 감사이고 축복이다. 흙내를 맡는 시간은 나를 잊을 만큼 자연과 하나가 된다. 하늘 향해 뻗은 오이 순을 보면 꿈과 희망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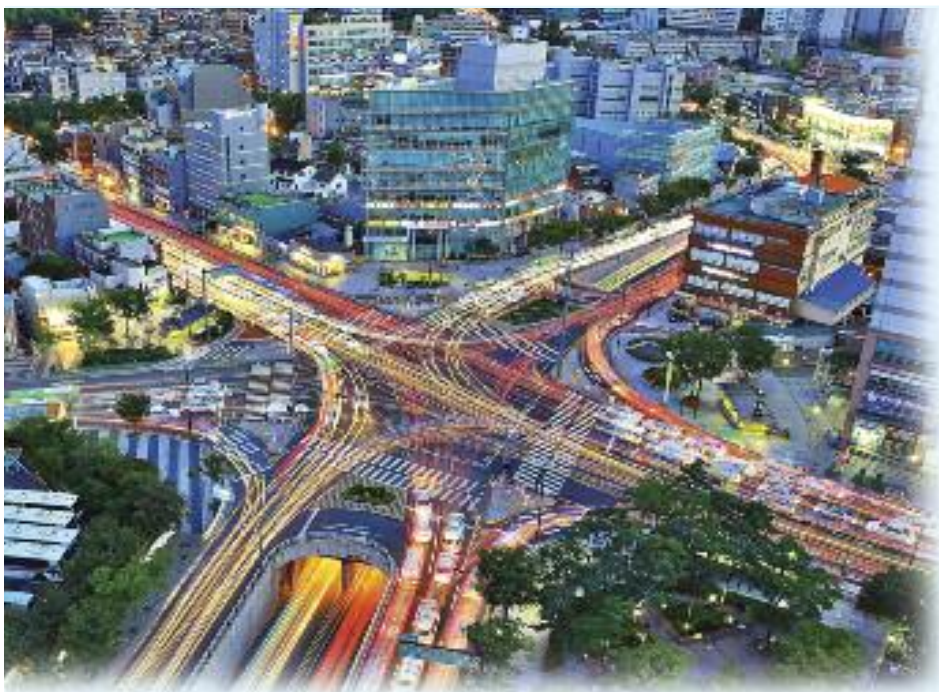
초록의 줄기마다 잎을 내고 마디마다 노란 꽃을 피우더니 꽃이 지고 꽃진 자리에 새끼 손가락만 한 오이가 오른다.

"아, 신기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이 생명의 신비로움!"

텃밭에서 이른 아침 매일 우리의 이야기 꽃을 피운다.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텃밭의 친구들과의 대화다. 텃밭에 물을 주는 시간은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준다. 촉촉이 젖은 땅은 흙내를 더욱 짙게 선물하기 때문이다.

"아,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오늘에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이고 나의 고백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합중연횡合從連橫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다.

합중연횡合從連橫이란 말이 떠올랐다. 이해利害에 따라 합치기도 하고, 연합聯合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경제에서는 기업들간의 경쟁일테지만 화약냄새가 진동하고 포연이 자욱하다.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싶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굳건한 동맹으로 삼아 뭉쳤나 싶다. 맞은 편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서있다. 중국 사람들 북한과 혈맹血盟이라 했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난감하다. 세상사엔 친구가 적이 되는 건 한 순간이고 그 역도 무리없이 성립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종種의 기원, 다윈이 한 말이다. '지구상의 살아 남은 종種은 가장 강하거나 지적인 종種이 아니다. 오직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種이다.'

나뭇잎의 빛깔은(조금씩 천천히 변한다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눈치 챌 수 없을 만큼

살금살금/느릿느릿 변해 간다

(정연복, 조금씩 천천히 중에서)

한국은 변할 줄 아는 비법을 터득했는가. 급변急變하는 세상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가. 변화는 살아 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1위인게 또 있다. 손톱깎이 제조 판매 부문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는다 했다. 한국 방문중에 나도 하나 샀는데, 이름도 행운이다. '777' 쓰리세븐.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 전서15:52)

1. 손톱깎이가 한국대통령의 미국 방문중 간단한 선물이라 했다. 상표가 777인가 그건 모른다.

한국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불렀다 했다. 맥주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70년대 초반까지 일거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머리카락을 팔고 싶었다. 가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긴 머리카락이 필요할 적이다. '머리카락 샅니다' 라고 외치는 중년남자들의 원목소리였다. 참 눈물겹다. 하긴 그것 뿐이겠는가? 생선을 잡아 일본에 수출했고, 중석(重石, Tungsten)을 파내 내다 팔았다. 마누라만 빼고 팔 수 있는 건 모두 팔아야 할 시절이었던 거다. 한동안 조선업이 막강하다 하더니 반도체부분은 세계 제일이라.

삼성의 올해 2사분기 수익이 14조원이라던가. 엄청난 수익이다. 삼성의 반도체 부문은 막강

하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은 말할 것도 없다. 물경 20% 내외 시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다. 지난 6월 말 경이다. 몇 개의 한국 신문기사가 눈에 잡혔다. 구석에 실린 경제/산업 기사였다. 간단히 줄이면 다음과 같다. 도시바는 반도체 사업부문을 매각하려 한다. 매각 협상에 한국SK하이닉스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 연합합대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동안 공을 드리고, 상당한 구매가격을 제시한 대만기업이 탈락했다. 중국이 아닌 대만일 지언정 도시바에서는 중국과 대만을 한 줄기로 봤다.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으로 기술력의 유출을 심각히 우려했던 거다. 게임 초반인데 한미일 연합군이 중국을 눌렀다. 경제에도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4파전을 벌인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2017 Hyundai Elantra SE

Hyundai Reserve
Popular Equipment Package: Four-spoke
leather-wrapped 3.5-inch segment LCD Cluster
Display, Apple CarPlay/Android Auto

Stock #HQ12414

Lease
\$4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Purchase
\$14,310
MSRP...\$16,190
Rebates...\$5,000
Prime Discount...\$1,500

Finance
0% APR
Available up to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2017 Hyundai Santa Fe Sport

Hyundai Reserve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free phone system, fog
lights

Stock #HQ12415

Lease
\$11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Purchase
\$20,825
MSRP...\$26,400
Rebates...\$4,500
Prime Discount...\$1,200

Finance
0.9% APR
Available up to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1.9% lease
finance option.

2017 Hyundai Sonata 2.4L

Two-spoke steering
4-spoke shift knob
TWC, Automatic

Stock #HQ12412

Lease
\$9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Purchase
\$15,560
MSRP...\$22,990
Rebates...\$5,000
Prime Discount...\$2,000

2017 Hyundai Tucson SE

Hyundai Reserve
Driver's Blind Spot Mirror, Silver Color
Three-spoke steering wheel, Rearview camera

Stock #HQ12442

Lease
\$14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Purchase
\$19,920
MSRP...\$25,370
Rebates...\$4,150
Prime Discount...\$1,500

Finance
0% APR
Available up to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2017 Hyundai Sonata Limited

Hyundai Reserve
Power Moonroof, Apple CarPlay/Android
Auto, Two-spoke
TWC, Automatic

Stock #HQ12421

Lease
\$14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Purchase
\$17,680
MSRP...\$26,400
Rebates...\$7,500
Prime Discount...\$1,300

Finance
1.9% APR
Available up to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1.9% lease
finance option.

2017 Hyundai Santa Fe SE

Hyundai Reserve
Blind Spot Warning, Bluetooth, Power Mirrors,
Steering Wheel, Power Windows/Locks,
Remote Keyless Entry

Stock #HQ12472

Lease
\$15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Purchase
\$27,765
MSRP...\$33,600
Rebates...\$2,900
Prime Discount...\$3,000

2017 Hyundai Azera Base

Hyundai Reserve
Leather-wrapped steering wheel, heated and
cooled seating, Rearview Mirror

Stock #HQ12190

Lease
\$22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Purchase
\$29,550
MSRP...\$35,300
Rebates...\$2,000
Prime Discount...\$3,100

2017 Genesis G80 3.8

Hyundai Reserve
Premium Pig, 5-spoke wheels, leather-trimmed
interior, 18" alloy wheels

Stock #HQ12154

Lease
\$26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Purchase
\$39,965
MSRP...\$49,900
Rebates...\$2,000
Prime Discount...\$1,000

Finance
1.9% APR
Available up to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or 12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08/31/2017.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All offers expire 08/31/2017."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

대도시에 살고 있다는 단점중에 하나는 교통체증이다. 이젠 어디를 가나 어느 시간대에 가나 항상 교통체증이 놀랍지 않다는 것이다. 한번은 심야영화를 보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데 93번 고속도로가 짹짹 막혀 있었다. 심야에 도로공사를 하는 관계로 차선을 일시적으로 모두 막아 놓은 것이었다.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무려 45분이나 지체해야 했다.

가끔 슈퍼마켓의 계산대 앞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곤하다. 손님들의 줄은 길게 늘어서 있는데 계산대 직원은 다른 동료와 잡담을 하느라고 자신의 계산대에 붙어 있지도 않는다. 한참 뒤에 계산대에 나타나서는 계산대 정리에 또 시간을 보낸다. 물론 이런 행동을 할때는 손님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대형마트에서는 물건을 찾을수가 없어서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 멀리서 직원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사라진다. 손님이 직원들과 눈이 마

주치면 도와달라는 요청임을 인식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일일이 손님들에게 대답하기가 귀찮아서 숨는 것이다.

나는 99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 대학 신입생때 그 여러 과목을 소화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 습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혹시라도 나중에 운동을 하지 않아 몸에 일찍 이상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에만 집중하다가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오면 과연 모든것이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난 오늘도 열심히 운동 하려고 노력한다. 나를 스트레스 받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에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이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야에 도로공사로 차선을 차단한 공사장 인부도 계산대

옆에서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는 슈퍼의 직원도 손님의 질문이 귀찮아서도 망가는 직원들도 자신들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나는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부동산 매매에서 협상의 진행을 보면 가끔은 한쪽이 너무 흥분하는 것을 목격한다. 사실 셀러도 바이어도 자신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 까지 상대를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다. 상대는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기분이 엉망이라면 억울하지 않은가? 자신의 기분을 좋게하는 음악도 들어보고, 좋아하는 책도 읽어보고, 산책도 해보고... 그리고 다시 협상을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나쁜 기분에서는 극단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기 쉽고, 극단적인 말은 더 극단적인 반응을 초래한다. 그래봤자 결국은 주택매매일 뿐이다. 이것이

과연 나의 인생을 만드는 지금 이 순간보다 중요할리는 없지 않은가? 나 혼자 화를 내고 씩씩 거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귀중하지 않을까?

나는 너무 억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89 화랑세기花郎世紀, 6세 풍월주風月主 세종世宗(18)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동륜태자가 부왕 진흥왕의 후궁인 보명궁주의 치마폭을 풀려고 월담하다가 ‘개사건’ 이 일어나 ‘개죽음’ 을 당한 후 왕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대대적인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중의 하나로 미실의 방탕한 색사가 들어났고 동륜과도 사통한걸 알게 되었다. 그러자 왕은 미실의 전주와 원화의 지위를 폐하고 출궁시켰다. 미실의 두번째 출궁, 그녀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왕궁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왕은 경외京外에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고 있던 미실의 남편 세종을 입궐하라고 명령하였다. 다시 그를 풍월주로 삼았다. 이어지는 화랑세기(필사본),

[다시 세종을 풍월주로 삼았다. 미실은 이에 세종에게 권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미 원화전주를 물러났으며, 그대와 함께 조용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 그대는 어찌 다시 풍월주가 되려 하는지요. 빨리 설원랑에게 물려주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했다. 세종은 이에 설원에게 풍월주의 지위를 전하여 주었다. 그 때 금태자金太子 또한 미실과 서로 사귀어 정을 맺는 것을 좋아하여 설원, 미생 등과 방외友方外友가 되었다. 미실이 비록 이미 출궁하여 깨끗하게 살 것을 공언했으나 가만히 있지 않

고 금태자와 더불어 후사를 약속했다. 진흥제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자제할 수 없어 미실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다.]

왕명을 받아 왕성으로 돌아온 세종은 다시 풍월주의 지위에 올라 화랑도를 이끌었다. 그런데 방탕한 사통으로 인하여 출궁당한 미실은 남편 세종의 풍월주 재취임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직을 사양하고 자신과 함께 조용히 살자고 강권하였다. 그래서 다음 풍월주의 자리는 설원랑에게로 이어졌다. 설원랑은 사다함의 이부동모의 동생이다.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이 구리지(사다함의 아버지)가 독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나서 구리지의 용양신이었던 설성을 남편으로 맞이하였다. 설성과 금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설원이다. 나중에 풍월주가 되어서는 설화랑으로 불리었다. 이 설화랑에 관하여서는 다음 7세 풍월주 <설화랑> 편에서 자세하게 볼 것이다.

출궁하여 조신操身하고 청조淸操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미실이었지만 타고난 색기를 주체할 수 없었는지 그녀의 옆에서 많은 남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금륜태자209) 도 있었다. 그는 신분을 파탈하고 설원과 미생 등과 어울리면서 많은 유희들과 유희를 즐기다가 미실에게도 접근하였다. 결국 그들은 후사를 약속하면서 통정을하였다. 그들의 ‘후사약속’

이란 다름아닌 왕과 왕후의 자리였다. 진흥왕이 죽자 왕후 사도는 왕위를 장손인 동륜태자의 아들 김백정에게로 잇지 않고 둘째아들 김금륜을 등극시켰다. 그리고 미실을 왕후로 들인다는 거래가 있었다. 사도의 입장에서는 같은 조카딸이었지만 지도부인(진지왕의 왕후) 보다는 미실을 더 아끼며 서로 결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지왕은 끝내 미실을 왕후로 책봉하지 않았다. 결국 사도와 미실 일파는 세종과 노리부 등을 내세워 왕후로 책봉하지 않은 것과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며 방탕하게 여색에만 빠져 황음무도했다고 폐위하였다. 진지왕의 정사가 혼미하고 문란했던 대표적인 일례가 삼국유사의 ‘도화녀와의 사랑이야기’ 이다. 사실 제25대 진지왕의 치적은 거의 없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즉위년(576년 8월) 부터 다음해까지 조금 친정을 하였고, 577년 부터 579년 까지는 상대등 거칠부가 대리청정을 하였다. 그리고 친모 사도태후가 정변을 일으켜 폐위 때까지는 상대등 노리부가 대리청정을 하였다. 그리고 폐위된지 1개월 후 흥서(왕이나 귀인의 죽음)하였다. 화랑세기에는 유궁에 3년간 유폐된 것으로 나오며 삼국유사의 도화녀와의 사랑이야기를 보면 3년간의 유폐가 더 정확할 개연성이 있다. 그는 만3년 간의 치세에서 별로 한 일이 없다.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577년). 남조의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

물을 바치고 외교관계를 이었다(578년). 그리고 백제와는 계속 대결양상을 이어갔다.” 등이다. 치세가 별로 없는 진지왕대에서도 화랑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577년(재위 2년 10월)에 백제가 서쪽 변경을 침입했을 때 왕은 세종을 필두로 군사/화랑도를 파병하여 일선군 북쪽에서 백제군 3천7백여명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내리서성을 쌓았다.

209) 진흥왕의 맏아들 동륜태자가 계에게 물려 죽고나서 둘째아들 금륜金輪이 태자가 되었다. 그가 제25대 진지왕이다. 삼국사기(진지왕 즉위조)에는 사륜舍輪으로 나오고, 혹은 금륜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다. 삼국유사(왕력편)에도 사륜이 먼저 나오고 일각 금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화랑세기에는 금륜(金)으로만 나오고 사륜으로 기록된 흔적이 없다. 이렇듯 그의 이름은 금륜이 더 타당한것 같은데, 후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편찬할 때 참고자료가 된 화랑세기의 금금자의 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 복미 개봉 확정! 평범한 이들의 뜨거운 희망과 진심

1980년 5월, 광주로 간 택시운전사



한국 영화 최초 칸라지아 영화제 폐막작 선정!

80년 5월 광주로 간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서울 택시운전사의 실제 이야기

송강호-토마스 크레취만-유해진-류준열
나이 국적 불문 명배우들의 첫 만남!

A TAXI DRIVER 택시운전사

송강호 | 토마스 크레취만 | 유해진 | 류준열 | 장훈 감독
SHOWBOX presents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8월 11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617) 423-580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ATaxiDriver-Movie.com  facebook.com/HitKMovie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仁 (인)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仁慈)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Or do you show contempt for the riches of his kindness, tolerance and patience, not realizing that God's kindness leads you toward repentance? - 로마서 2: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장거리 핵(核) 미사일을 개발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이 8월 2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막으려는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한반도) 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미국)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백악관은 그레이엄 상원의원 발언을 부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입에서 나온 “전쟁”이란 말, 과장이 심하고 돌출성격의 트럼프이기는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전쟁”이란 말을 쉽게 넘길 순 없다.

미 본토와 미국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국인을 희생해서라도 전쟁할 수 있다는 그의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보여준다.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란 사실은 현 안보(安保)위기의 변수 중 하나?

같은 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어느 시점에 생산적 대화를 하고 싶다”고 정반대되는 언급을 했다.

그는 북한 정권 붕괴, 38선을 넘어선 미군의 진주(進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셈.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대화 테이블엔 나가왔었다는 것.

전쟁이란 말 하긴 쉬워도 실행은 쉽지 않아서 결국 미·북(美·北)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

공경에 물린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미·북 양자회담을 지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욕타임즈는 2일자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허세(虛勢)를 버리고 틸러슨 국무

장관을 평양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의원 등도 북 핵 미사일 동결을 전제로 미·북 직접 대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전쟁 불사론’에도 틸러슨의 ‘미·북 협상론’에도 한국은 모두 빠져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간 통화가 없는데 대해 “대통령이 의제(議題)에도 없는데 무조건 통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황당한 변명을 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전쟁이 나오고 미 국무장관은 남한을 뺀 미·북한 직접협상을 말하는 것 이상의 의제(議題)가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났다.

안보위기 중에 휴가를 갔다는 비판을 의식한 일정으로 보이지만 한·미 정상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정을 더 급급케 한다.

이대로 가다간 미국이 강경책을 쓰든 유화책을 쓰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통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청와대는 “코리아 패싱은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

국가의 안보지형이 격동하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말은 ‘대통령 휴가 변명’이 거의 전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9일 새벽 사드(THAAD)잔여 발사대 배치를 전격 지시할 때만해도 빠른 후속조치가 예상됐다.

미국도 즉각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사드 추가 배치에 한 달 더 걸릴 것이라는 계산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환경부와 한 달 정도 협의해야 하고 반대주민도 설득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를 “임시 배치”라고 했다. 환경평가와는 별개라는 것.

전자과 측정 결과 아예 전자과가 측정되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시대로 배치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다시 미적거리면 이 문제가 또 어떻게 꼬일지 알 수 없다.

한·미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드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차피 배치될 수밖에 없는 사드의 발목을 잡고 국론 분열을 일으킨 것이 결국 이 같은 사태를 만들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외선전단체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진행되자마자(남한이) 한밤중에 긴급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을 소집하고 사드 발사대의 추가배치를 지시하는 발작적인 망동을 부리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발사를 감행한데 대응해 사드 발사대 잔여 4기를 임시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仁人: 慈也자야 - 인자할 인.

얼핏 외형상으론 ‘仁二’ 해석하면 두 번째 사람. 그러나 그림으로 해석하면 1 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1’ = 人.

하늘에서 ‘숨결: 1’로 땅으로 내려오는 ‘1’ 그림: 1. 위 하늘에서는 호흡 즉 숨결이 땅으로 내려오니 ‘人’의 본질이 하늘위에서 땅 아래로 내려오는 그림.

그 옆에 ‘二’는 ‘하늘 땅’을 표하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삼위(三位)일체 중 一위: 하나님 아버지, 二위: 아들 예수님, 三위: 성령(聖靈)님을 표시한 것. 그래서 삼위일체(三位一體)란다.

따라서 ‘仁’은 인자 예수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림이다.

이 仁을 다시 강조한 말이 愛(애: 사랑)이다. 하늘 나라의 仁이 세상의 땅으로 내려온 것이 愛로 나타난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永生)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 요한복음 3:16. 해서 이 영생(永生: Eternal Life)은 예수님의 仁을 통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아들(예수 그리스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Whoever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whoever rejects the Son will not see life, for God's wrath remains on him.” - 요한복음 3:36.

그러므로 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이 세상이 끝나도 천국에서 영생(永生)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仁에 머물러야...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 무료 견적서
-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페인부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 경력 -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채 사원(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이크리 콜리슨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di, 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26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Tel: 978.664.2321, Fax: 978.664.2314
E-mail: autobody.hk@gmail.com



방학맞이 선명한 눈매, 오뎅한 콧날을
원하시는 당신이라면



고국 방문 성형 할인 이벤트!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 당당한 그녀가 아름답다! ”

당당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얼굴을 찾아드리는 기회!
방학맞이 고국 방문 성형 이벤트를 이용해보세요.
고객님께 안전하고, 완벽한 수술로 최상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전문 병원 맞춤 컨설팅! 휴람!

01
EVENT

눈 성형

- * 단매듭 연속 매몰
110 만원 → 88 만원
- * 부분 절개
154 만원 → 123 만원
- * 매직트임
110 만원 → 88 만원

02
EVENT

코 성형

- * 콧대 성형
220 만원 → 165 만원
- * 코끝 성형
220 만원 → 165 만원
- * 콧대 + 코끝 성형
385 만원 → 308 만원



□ 휴람에스테틱 협력병원



- 상기 비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unkorea
huraunk@huraunk.kr / www.huraun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97)

법으로 제정된 신용 의무(Fiduciary Duty)

말도 익숙지 않은 낯선 땅에 와서 힘들게 한 톨 한 톨 모았습니다. 은행에 저금한 돈으로 이자도 거의 없기에 은퇴를 위해 투자를 고려합니다. 소중한 돈을 투자하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은퇴 전문설계사, 투자 재정설계사, 등을 찾아갑니다.

재정설계사를 고용할 때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나의 재정설계사가 과연 나의 이익(Best Interest)을 먼저 생각해서 투자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지?' 가 매우 궁금합니다.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은 6/9/2017년 을 기준으로 "재정설계사는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익" 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주식 브로커(Stock Broker), 보험 에이전트(Insurance Agent), 그리고 대다수 재정설계사(Financial Adviser)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적당한 의무(Suitability)만이 있었었습니다.

한 재정설계사가 어떤 금융상품을 추천합니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재

정설계사는 수수료(Commission)를 받습니다. 추천한 금융상품을 파는 이유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면 재정설계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신용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자에게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주식시장이 상승해도 나의 투자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금보다 적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변동 어뉴어티(Variable Annuities), 비싼 뮤추얼 펀드(High-Fee Mutual Funds), 비공개 부동산 투자(Non-traded REITs), 등입니다. 이러한 투자 종목들은 재정설계사가 높은 수수료(Commiss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뉴어티의 평균 수수료는 8%, 뮤추얼 펀드는 6%, 그리고 비공개 부동산 투자는 무려 13%입니다. 수익률도 비공개 부동산 투자는 공개된 부동산 투자(REIT ETF)의 절반에 그친다고 금융기관인 블룸버그

(Bloomberg)는 말합니다.

최근 대학교수 3명이 재정설계사의 잘못된 행동(The market for financial adviser misconduct, May 10, 2017)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의 8%는 고객 자산 운용에 매우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설계사의 2/3가 일 년 후 같은 회사나 다른 회사에서 다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큰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규모가 큰 금융회사의 재정설계사 15%는 고객 자산관리에 매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Why you can't trust your financial adviser, Ben Steveman, Bloomberg, June 7, 2017.)

한 예로 금융회사인 LPL Financial은 은퇴자에게 부적당한 어뉴어티를 팔아서 금융감독기관은 벌금 3.7 Million을 부과했습니다. 재정설계사는 어뉴어티를 팔아서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은 물론 회사에

서는 어뉴어티를 많이 팔았다고 해서 상장(Chairman's Club)도 수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미 판 어뉴어티를 다시 팔아서 새롭고 더 좋은 어뉴어티라고 말하며 재계약함으로 수수료를 다시 받는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Massachusetts fines LPL financial over Annuity sales, Securities Lawyers, May 13, 2017).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도 잘못된 금융상품(Single Inverse ETF)을 투자자에게 판 혐의로 금융감독기관(SEC)이 벌금 8 million을 부과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신용 의무(Fiduciary Duty)가 제정되었다 해도 재정설계사가 얼마나 성의껏 준수하느냐는 재정설계사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또한 신용 의무는 은퇴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세금을 낸 개인이나 조인트 계좌(Joint Account)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정설계사가 이런 계좌를 이용해서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법은 올해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내년(2018) 새해부터 완전히 적용됩니다.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

이명덕 박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백만장자(Millionaire)란
우리과 거리가 먼 판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617.955.9112**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상속세 · 증여세 (6)

- 5백만불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낸다고?(Unified Tax Credit)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재산의 가액이 5백만 불 이하면 증여나 상속세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데...정말 그럴까요? 이번주는 연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여나 상속세 대상이라도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한도까지는 낼 세금없어

미국의 연방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거주자(Resident Alien)는 어느 누구든 일생에 걸쳐 증여 또는 상속세금에서 \$2,141,800(이는 \$5,490,000의 증여/상속가액에 해당하는 세금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 하는데 다시 설명하면 증여나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5,490,000이면 그에 대한 세금이 \$2,141,800 계산되는데, 그 금액에서 통합세액공제액인 \$2,141,800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증여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그 세금이 통합세액공제액 \$2,141,800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중 김한국씨가 아들에게 \$1,014,000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김한국씨는 아들의 연간면제금액인 \$14,000을 차감한 \$1,000,000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그에 대한 2017년도의 증여

세는 \$345,800입니다.

그러나 김한국씨는 통합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2,141,800 중 증여가액 \$1,000,000에 대한 세금 \$345,800을 모두 공제받게 되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하면 김한국씨는 통합세액공제액 한도액 \$2,141,800에서 이미 \$345,800을 공제 받았으므로, 향후 증여나 상속을 통해 그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이 \$1,796,000(평생면제가액 \$4,490,000에 해당하는 세금)이 됩니다.

	평생면제액 (Lifetime Exclusion)	통합세액공제액 (Unified Tax Credit)
최대 가능금액①	\$ 5,490,000	\$ 2,141,800
2017년 공제액②	\$ 1,000,000	\$ 345,800
향후 공제 가능액 ③=①-②	\$ 4,490,000	\$ 1,796,000

이러한 통합세액공제액은 부부 중 한 명이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미사용액은 생존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현재 부부가 생존해 있다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5,490,000를 다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미사용액을 생존 배우자가 승계받기 때문에 부부는 최대 \$10,980,000까지 증여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각 주의 증여세 · 상속세는 내야해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되는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이 \$5,490,000이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통합세액공제는 연방(Federal)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은 각 주(State)마다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MA주를 예로 들면 MA주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상속세는 부과합니다.

MA주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사전 증여가액(내국세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0,000이상이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1,000,000는 단지 상속세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Filing Threshold)일 뿐, 상속재산에서 \$1,000,000를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상속재산과 사전증여가액이 \$1,000,000을 초과하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MA 거주자인 김한국씨가 재산 \$5,000,000 중 \$4,500,000를 사전에 증여하고 나머지 \$500,000를 상속했다면,

-첫째, 상속세 신고 · 납부 대상여부는 실제 상속재산 \$500,000과 사전 증여재산 \$4,500,000를 합한 \$5,000,000과 기준금액 \$1,000,000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실제 상속재산 \$500,000과 기준금액 \$1,000,000을 비

교하는 것이 아님). 이 사례에서는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합계액 \$5,000,000이 기준금액보다 커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 둘째, 일단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되면 실제 상속한 \$500,000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상속재산 \$500,000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님).

- 셋째, 이때 구체적인 MA 주 상속세는 2000년 12월 31일 당시의 연방상속세법에서 인정한 주상속세공제액(Credit for State Death Tax)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 · 증여세는 내야 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재산 \$5,000,000(2017년의 경우 \$5,490,000)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낸다는 것은 연방 상속세나 증여세에 국한된 내용으로, 거주하는 주(State)에는 주(State)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증여나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증여나 상속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또다시 목숨 전진 오바마케어 (1)

뇌암으로 병상에 있던 80세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 매케인까지 워싱턴으로 불러 왔다. 트럼프케어 입법을 위한 상원 표결을 대비한 것이다.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지난 두 달여 동안 밀실에서 극비리에 가진 논의 끝에 세 법안을 짜냈다. 첫 번째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며, 트럼프케어로 대체” 법안(공식명칭 Better Care Reconciliation Act)은 7월 25일 화요일 표결에서 43대 57로 부결되었다. 7월 26일 수요일에는 45대 55로 두 번째 “오바마케어 부분폐기/대체안 없음” 법안(공식명칭 Obamacare Repeal Reconciliation Act)이 실패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칼을 뽑았다. 스킨리 폐기(Skinny Repeal)라는 별명의 법안(공식명칭 Health Care Freedom Act)이었다. 오바마케어의 보험 의무화, 벌금제도 그리고 의료기구에 대한 세금 등 단 세 조항만 폐기하자는 것이다. 찬성50표를 끌어 낼 최상의 안이라고 자신하고 올인하였다.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줄곧 모

든 법안을 반대해 왔기에 애초 계산에 넣지 않았다. 매케인만 찬성하면 가결이다. 7월 28일 금요일 새벽 1시 20분, 상원 의사당 내 모든 시선이 집중된 긴장의 순간이 되었다. 공화당은 마지막까지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매케인은 부표를 던졌다. 탄성과 환호가 동시에 터졌다. 스킨리 폐기안까지도 부결된 것이다 (찬49, 부51). 공화당 상원리더는 부결 직후 “다음 과제로” 라며 트럼프케어 입법 중단의사를 표명하였다. 트럼프는 상원의원들을 “바보들”이라며 분노에 차 있다. 지난 7년간 오바마케어 반대와 방해로 일삼은 공화당, 대통령과 상하원 다수로도 오바마케어폐기를 달성치 못했다. 자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되었기에 참패였다.

왜 실패했나?

공화당이 숙원을 이룰 절호의 기회를 매케인이 무산시켰다. 정치이념에 따른 반대였을 수도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시 “포로는 영웅이 아니다”라는 매

케인을 깎아 내리는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는 견해도 있다. 월남전 당시 5년여의 포로생활과 고문으로 생명을 거의 잃었다 생환하였기에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원천적 실패 원인은 52석으로는 큰 일을 하기에 어렵기도 하였지만 소속의원 전부가 동의할 법안이 없다는 점이다. 즉 보수와 진보성향 중도의원들의 요구가 상반되어 협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표현이 적절하다. 2015년 보수계의 분란으로 하원 의장직과 하원직을 사임한 공화당원 존 베이너는 “공화당은 건강보험법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한 예언은 아직 적중하고 있다. 입법하려는 새법이 오바마케어와 비교가 된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2천만 이상이 보험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연 구결과는 정치적으로 감당기 어려웠다. 오바마케어를 전폭 수용한 몇몇 공화당 주지사 특히 오하이오주와 네브래스카 주지사의 강력한 반대는 이들 주 출신 상원의원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

패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오바마케어 폐기/대체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GDP)의 18%에 달하는 의료정책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식견도 없다. 그렇다고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권위 있는 캠페인도 하지 못했다. 일관된 목표를 향한 진군이 아니라, 시시각각 바뀌는 목표로 혼돈만 일으켰다. “오바마케어가 자폭하도록 내 버려두겠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정책으로 대체하겠다”, “오바마케어 폐기만 하자”. 천방지축, 구경꾼의 외침 같았다. 결코 리더는 아니었다. 당내의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심지어 의원직까지 걸고 반대하는 자당소속 의원들의 팔을 비트는 일이나 하고 있었다. 위엄이 사라지고, 국민의 지지도가 낮은 대통령 주위에 사람이 없기 마련이다. 중대한 과업을 성공으로 끌어 내기엔 버거웠다.

(다음 주에 계속)



마이클 리 (Michael Lee, 978-314-8818)

Insurance Broker, mlee.insurance@gmail.com

- License in Health, Life, Series 6, Series 63, Property & Casualty
- Health/Life/Annuities/Medicare/Disability/Group Benefit/Reinsurance 전문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 NMLS # 1464242 / Real Estate License No. 9534498
- Government & Conventional Residential Loan

Mortgage 4

집수리가 필요하세요? 집을 찾긴 찾았는데 마음에 들기엔 수리가 필요한가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새집을 짓는 것도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으려면 땅을 찾아 허가를 받고 건축가를 찾아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 완공까지 기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전미 평균적으로 새집이 헌집보다 20%가량 더 비싸다고 합니다. 최근 Zillow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홈바이어 5명 중 2명(41%)은 새집을 원하지만 그 두 명 중 46%만이 추가금액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원하는 집을 사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주 많은 홈바이어들이 집을 구입하고 마음에 들도록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 리모델링은 이미 살고있는 집에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거나 오래된 내 집을 수리하고 싶을 수도 있고 집을 매매하기전 화장실과 주방을 수리해

더 좋은 값에 팔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대부분의 리모델링도 물론 저렴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지붕, 창문만 바꾼다 하더라도 목돈이 들고 오래되고 어두컴컴한 화장실, 주방을 새로 뜯어 고치고 싶다면 정말 두 눈 꼭 감고 큰 마음을 먹어야 가능합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땐 바로203(K) Loan이 안성맞춤입니다. 203(K) Loan은 연방정부가 뒷받침하는 FHA론의 종류로 집수리 비용을 FHA론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수리가 필요한 집을 구입 할 경우 모기지를 받아 구입하는 동시에 수리에 필요한 비용도 합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203(K) Loan은 구입뿐이 아니라 현재 살고있는 집을 Re-Finance 할 수도

있습니다. 큰 비용 부담 없이 집을 리모델링하고 싶다면 현재의 모기지과 수리 비용을 합하여 다시 203(K) 재융자를 받게 됩니다. 오래되어 바꾸고 싶은 부분들, 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을 수리하거나 집을 매매하기 전 가계부에 큰 부담없이 리모델링을 하여 바이어들의 마음을 유혹 할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203(K)론 역시 약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 FHA론과 마찬가지로 개인주택이나 4-패밀리 유닛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Standard 203(K)는 최소비용 \$5,000 이상의 수리를 해야하고 Limited 203(K)는 건물의 구조는 바꿀 수 없으며 최고 \$35,000까지의 비용이 가능하며 정해진 최소 금액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수리 비용으로 가족이나 집주인이 직접 작업 할 수

는 없으며 전문가를 통한 공사와 인스펙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FHA론 이기에 총 대출 금액이 주택 감정가의 90%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만 크레딧 점수와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렇게 감정가의 80% 이상 대출일 경우 모기지 인슈어스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큰 공사로 집값이 높아질 수 있다면 공사전, 현재의 가치대비 100% 이상도 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모기지 프로그램 중 정부에서 뒷받침하는203(K)론을 사용한다면 집구매와 리모델링, 또는 리모델링과 재융자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목돈을 준비하기까지 기다리고 투자하기를 고민하기보단203(K) 정부론을 취급할 수 있는 렌더를 찾아 상의하여 꿈에 그리던 집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송동호종합로펌 최강이민팀

SONG LAW FIRM

ATTORNEYS & COUNSELORS AT LAW

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같은 스펙,
다른 결과!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NIW 금주 성공 사례

- J. Lee 고객 NIW 승인 케이스
-서울대 천문학과 학사 & 석사,
콜롬비아 천문학과 박사, 논문 5개, 인용 39개
- W. Choi 고객 NIW 승인 케이스
-아주대 생물공학 학사 & 서울대 석사,
미시간 주립대 생물공학 박사, 논문 6개, 인용 123개
- J. Chang 고객 NIW 승인 케이스
-UC Irvine 생명공학 학사, Case Western 의대,
논문 2개, 인용 2건

NIW 해당 전공

• 컴퓨터/전자공학	• 의학/약학/간호학
• 생명공학	• 유전학/면역학
• 생화학/생의학	• 분자생물학
• 우주공학/천문학	• 치의학
• 환경공학	• 전염병학
• 재료공학	• 과학 교육
• 로봇공학	• 임상심리학/심리학
• 물리학/화학	• 경영학

※ 이 외에도 가능한 전공들에 많으니,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Q | 400 Kelby St., 7th Fl., Fort Lee, NJ 07024 •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CA • CT • DC • GA • MA • MD • NJ • NY • PA • VA • KOREA • CHINA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 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융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7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북쪽 풀플랜트, 연매상 \$160,000 소유자 은퇴(32년)

보스톤 북쪽 드랍+아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남쪽 팩스보로 스타디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400,000
하이드로카본 기계, 고용인(3명)+소유자(1명)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0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런드로맷(소유자 부재 중 경영), 아파트(1 유닛), 사무실,
스토리지(100 유닛, 온도조절), 땅:3.5에이커, 모든 사업체+부동산 매매가격 \$2.2M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1명+직원5명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파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전문 강사진

여름방학 단기3주 집중 프로그램

- 기간: Session 1: 6/26 - 7/14, Session 2: 7/17- 8/4, Session 3: 8/7 - 8/25
- 2017년 여름방학 단기 집중 3주 프로그램
- 10여년이 넘는 보스턴 명성과 신뢰의 교육원
- 처음 준비하는 SAT 부터 AP 과정 및 경시대회 준비
(Math, Physics, Chem, Bio, AMC 및 각종 Olympiad)
- 30명 이상의 검증된 강사진으로 영어, 한국어로 수업 진행
- 합리적인 수강료. 모든 강좌는 선착순 등록이며 수강 납부시 등록 확정

	SSAT/WRITING	SAT/ACT
09:00-10:00	단어 암기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0:00-12:30	Reading Comprehension & Essay, SSAT Math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2:30-01:00	점심식사	점심식사
01:00-02:00	Writing Essay와 에세이 첨삭	SAT/ACT Practice Test
02:00-03:30	SSAT Practice Test	SAT/ACT Practice Test
03:30-04:30	단어 암기	오답노트 작성 & Study Hall
04:30-05:00	오답노트 작성 & Study Hall	오답노트 작성 & Study Hall

저희 보스턴 교육원은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입학 및 가디언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BEW 만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메사추세츠 지역 공립 학교에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학원 프로그램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여름 집중 3주 SSAT 프로그램은 Upper Level을 위한 준비로, Rising 8 학년 부터, SSAT 를 요구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SAT 프로그램은 대학교를 지원하는 10, 11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수정예 수업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며, 밀착 학업 관리로 3주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부모마음 점심을 별도로 신청 가능)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턴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